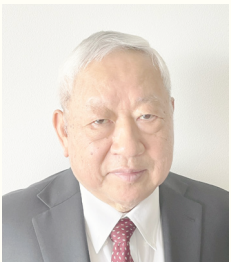




“가족같은 동문님들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

강행군이었습니다. 8월에는 차를 몰고 2400마일을 달려 북가주, 오레곤, 워싱턴주 등 서부 3개 지부를 방문해 동문들을 만났고 8월말부터 9월에는 역시 차를 몰고 6700마일을 달려 시카고, 미시간, 뉴잉글랜드, 조지아 등 동부 4개 지부 동문들을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년 편지

북서부에서 동부, 한국까지 5개월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10월에는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해 미주 전지역 동문들이 서울대 발전을 위해 쓰라며 보내주시는 기금 중 3만 달러를 유홍립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모교에서는 유홍립 총장께서 미주 동문들만을 위한 환영 오찬을 준비했고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홈커밍데이 다음날 미주 동문들을 위한 야외 음악 파티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귀빈 대접이었고 모교에서 바라보는 미주 동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역만리 미국땅에서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성공의 꽃을 피운 미주 동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주 동문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주 각 지역에 사는 동문들을 만나 환대를 받으면서는 ‘우리는 서울대인 한 가족’이라는 말이 단순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쁜 시간을 쪼개 어찌 그리 반갑게 맞아줬을 것이며 멀리서 찾아온 벗인양 마음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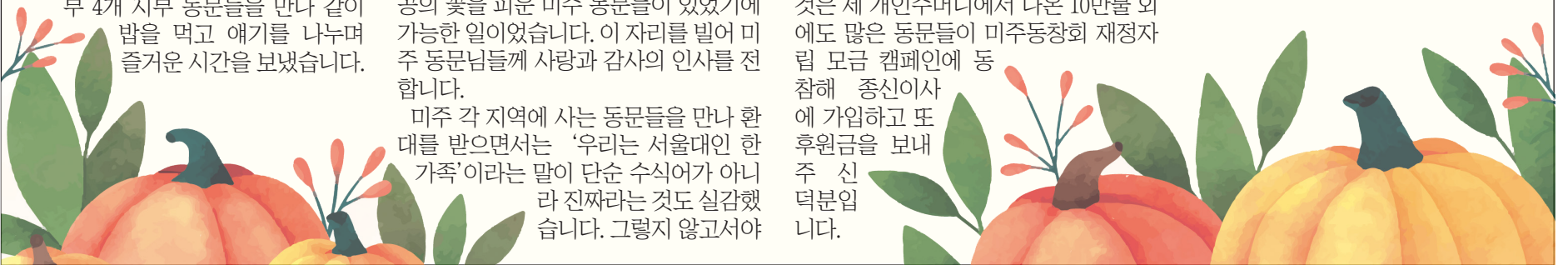
각 지부를 방문하면서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각각 2000불씩을 드렸고 젊은 동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또 2500불씩을 드렸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가 하는 장학사업과 젊은 동문들의 활발한 동창회 참여는 제가 미주동창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이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 동문님들께 저의 작은 성의가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10만불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종신이사에 가입하고 또 후원금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뉴욕 조상근 동문은 5만불, 5만불씩 2년 동안 10만불을 기부해 플래티넘 이사가 되주셨습니다.

미 서부에서 동부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진 지난 5개월간의 ‘동문 만남과 나눔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즐거웠던 그 때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가지 못한 지부가 있는 것인데 새해에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 한해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조심해서 건강 챙기시고 동창회와 각 동문의 가정이 나날이 웃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북가주 민병곤 · 전해경 동문 부부 장남, 연방 하원 입성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47지구 선거구서 당선
“이민자의 아들로 이 나라에 모든 것을 빚졌다”

서울대 커뮤니티에 경사가 났다.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북가주 민병곤(공대 토목공학 65) · 전해경(문리대 화학67) 동문 부부의 장남 데이브 민(48) 가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민주당 소속인 데이브 민은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서 51.3%의 득표율로 48.7%를 얻은 공화당의 스콧 보 후보를 꺾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부친 민병곤 동문은 “축하전화와 문자가 쇄도해 얼떨떨하다”며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4년여 표밭을 열심히 갈아 마침내 꿈을 이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민병곤 동문은 북가주 서울대 동창회 이사장을 지냈고 부인 전해경 동문과 함께 미주동창회 골드이사(1만불 이상 기부)로 가입해 서울대 동창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동문이다. <2면으로 계속>



민병곤(왼쪽) 전해경 동문 부부와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장남 데이브 민.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최고급 세인트폴 호텔에서 동문님들 극진하게 모실게요”

내년 6월 20일 평의원 회의 미네소타 세인트폴 개최
그림 같은 호수, 고풍스런 호텔, 골프는 LPGA 코스

그림같은 호수가 1만여 개, 유서 깊은 최고급 세인트폴 호텔. 크고 작은 호수가 무려 1만개가 넘는 곳,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질푸른 호수를 둘러싸고 그림 같은 집들과 청산이 빛어내는 황홀한 풍경에 인심까지 후하기로 유명한 곳,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전국 평의원 회의가 열린다.

내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황효숙(사대 65)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이 미전역의 동문들에게 일찌감치 평의원 회의 초대장을 보냈다. 제 34차 평의원 회의가 내년 6월20~22일 2박3일 동안 미네소타주 주도인 세인트폴의 세인트폴 호텔에서 열린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문들께서 미네소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셔서 미네소타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리고 싶어서요. 덕분에 세인트폴을 상징하는 유서깊은 최고급 호텔인 세인트폴 호텔을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됐구요.”

미시시피강변에 고풍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세인트 폴 호텔은 1927년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찾은 것을 비롯해 1960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묵었던 곳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바로 앞 강에는 크루즈가 있어 저녁을 즐기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도시의 랜드마크인 세인트폴 대성당은 스테인드 글래스와 조각상 등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15일만 가면 트윈 시티인 미니애폴리스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몰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 연간 4000만 명이 찾는 곳이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 하시는데 극진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호텔도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일요일 골프치는 동문들을 위해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던 LPGA 경기를 치르는 골프장도 멤버십을 가진 동문 도움으로 저렴하게 예약했다”고 말



“얼마전에는 오랜만에 여성 동문들만의 모임을 가졌는데 여성의 섬세함으로 팔팔어부치고 뚝뚝다고 큰 힘이 됐다” 고 전했다. 미네소타주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알려지면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다. 6.25 전쟁 후 미국 정부는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네소타 대학에 의뢰해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약 7년 동안 서울대 의대, 공대, 농

했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또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네소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있다”며

“당시 미국 정부가 90개국을 도와줬는데 성공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었다고 들었다” 며 “동문들께서 모이면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낸 서울대 선배님들의 노력,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돌아보며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해보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미네소타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며 “2박3일이 아쉬운 동문들을 위해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1면에서 계속>

부부는 지난 1972년 브라운대에 유학해 민 동문은 고체역학, 전 동문은 물리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민 동문은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전 동문은 반도체 기업에서 오래 일한 뒤 은퇴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UC 어바인 법대교수를 지내던 2018년 11월 중간선거때 연방 하원에 첫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2020년 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거쳐 이번에 연방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민 동문 부부는 아들의 첫 정치 도전이었던 2018년에는 살고 있는 북가주 팔로알토에서 주말이면 데이브 민이 출마한 선거구로 내려와 곳곳을 다니며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 특히 얼마 전혜경 동문은 매일 저녁 9시까지 하루 평균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투표 참여를

당부했었다. 그리고 아들은 가주 상원 의원을 거쳐 결국 뜻한 바를 이뤄냈다.

데이브 민 의원은 당선직후 성명에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나라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빛졌다”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와튼 스쿨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변호사로 기업감사업무를 맡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제 금융정책 자문으로 정계와 인연을 맺은 그는 워싱턴의 진보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만난 아내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부인도 UC 어바인 법대에서 가정법을 가르치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 19대 회장 후보 추천해주세요

인선위원회, 12월 31일까지 추천 당부
남가주 · 하트랜드 · 미네소타 지부는 제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미주에서 활동하는 동문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제19대 차차기 회장(임기 2027.7.1~2029.6.30)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제16대 회장을 지낸 노명호 인선위원장은 “모든 지부에서 관심을 갖고 훌륭한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천 공고가 좀 늦었지만 동창회 관례에 따라 가능하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추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 19대 회장은 회칙상 직전 회장인 16대(남가주 노명호), 현 회장인 17대(하트랜드 이상강), 차

기 회장인 18대(미네소타 황효숙) 회장을 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부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9대 회장은 2025년 6월 열리는 제34차 평의원 회의에서 선출된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미주동창회장 인선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직전 회장인 16대 노명호 회장이 맡았고 인선 위원은 17대, 18대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지역 안배를 고려해 추천된 뉴욕 지부 김정필 회장, 시카고 지부 조규승 회장, 뉴잉글랜드 지부 최진민 회장, 워싱턴DC 지부 정세근 회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시카고 지부 조규승 회장, 골드 이사 됐다

이용락 동문 이어 시카고서 두번째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장 조규승(문리대72. Kevin Cho) 동문이 최근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조 동문은 “10년 전부터 선배들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유해 참여했다”면서 “서울대 동창회는 고향을 찾고 느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으니 그런 생각이 절실했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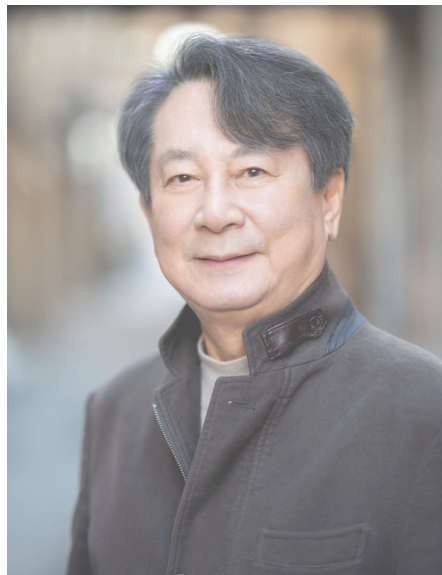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어서 연중 4~5개월을 해외에 나가야 하는 탓에, 당초 원했던 만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임원진들이 척척 팀워크가 잘 맞아서 좋았으며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잊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야유회가 있었고 최근에는 음악회도 개최했는데 역시 서울대 동창회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행사 진행이 돋

보였습니다.”

최근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이 시카고를 방문해서 1박2일간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시카고 동창회가 LA나 뉴욕에 이어 3번째 규모였다. 서울대 동문들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미주동창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시카고 지역에서 골드 이사는 90대 중반인 이용락 선배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정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골드이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규승 동문은 입학 당시 문리대 정원 420명이었는데 납부금을 면제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모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대우실업에 입사했는데 당시 한국 가전 3대 메이커 중 하나였던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인수할 때 인수팀에 합류해 가전



제품과 인연을 시작했다.

조 동문은 대우전자 시카고지사 설립 요원으로 미국에 와 지사장까지 됐지만 자기 사업에 뜻을 두고 5년 반 만에 독립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의’

와 ‘믿음’이라는 무기로 판매망을 뚫어서 미국 최대 가전 슈퍼스토어인 서킷시티에 입점했고 ‘CNA인터내셔널-매직셰프(Magic Chef)’를 세웠다. 2010년에는 ‘매직셰프’ 브랜드를 아예 인수했으며 현재는 운영하던 테네시와 알라바마 공장을 정리하고 중국, 튀르키예 등에 OEM으로 생산해 매직셰프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그는 “일본 파나소닉 마쓰시다 선생의 경영 철학에 공감했다”면서 “마쓰시다는 일본의 중산층 이하에게 적절한 품질의 중저가 가전제품을 공급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구매 가능한 품질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 사업 초점을 뒀다”고 자신의 박리다매 전략을 소개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세운 CNA인터내셔널과 MCA코퍼레이션이 그의 사후에도 계속돼 100년 이상 되는 단단한 기업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시카고 지부 고 이윤모 동문, 종신이사 가입

부인 이화식 여사 “동창회보 애독한 남편이 좋아할 것”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시카고 지부 소속 고 이윤모(농대57) 동문이 최근 종신 이사에 올랐다.

지난 11월 동창회보와의 통화에서 이 동문의 부인 이화식 여사는 “남편 타계 후 생전 저술을 출간해왔다”면서 “동창회보를 계속 열심히 구독했는데 어려운 여건 아래서 발행되는 동창회보에 힘을 보태고자 종신이사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39년생인 이윤모 동문과 이 여사는 1970년 켄터키로 유학와서 시카고에 정착했다. 이 동문은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주필, 편집국장을 역임하는 등 20년간 재직했고 이후 일리노이 주정부 인 권국 연구실장으로 15년간 재직했다.

고 이 동문은 농대를 졸업한 후 서울감리교신학대에서 공부했으며 미국에 와서 시카고 로올라 대학(LUC)에서 ‘한인의 지위 불일치감과 종교적 헌신’으로 1978

년에 사회학 석사 학위를, ‘권위주의 인성의 자생조직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식 변화’로 1987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사회연구원’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생전 연구 논문은 이화식 여사에 의해서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 ‘갈등과 협동의 사회학적 논의’ ‘행동사회학: 사회-생물학적 접근’로 정리돼 출간됐고 지난 6월29일 시카고 글렌뷰 공립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고 이윤모 동문과 이화식 여사.

필라델피아 김주진 동문, 유펜에 2500만불 기부

한국학 연구 ‘제임스 주진 김 센터’ 설립

필라델피아 김주진(법대55·영어명 제임스) 동문이 지난 2022년 제임스&아그네스김 패밀리파운데이션을 통해 2500만 달러를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기부하면서 시작된 한국학 센터가 최근 설립됐다.

유펜 신문인 더 데일리 펜실베이니안은 최근 지난 9월 12일 한국학 연구 기관인 ‘제임스 주진 김 센터’(이하 김 센터)가 지난 9월12일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센터는 연구자를 양성하고 학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 내 한국학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동문은 이미 지난 2011년 유펜 대학에 6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김주진 동문은 모교 법대 재학중인

1955년에 미국에 왔다. 1959년 유펜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유펜 교수, 동문 이사회,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한국유학생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또한 유펜의 유일한 아시안계 이사로 동아시아학과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금 마련 사업을 꾸준히 벌이기도 했다.

한인으로는 처음 와튼스쿨 학장상을 받기도 했다. 김 동문은 아남그룹 창업주인 고 김향수 앰코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앰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문 업체로,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갑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



지난 9월12일 김주진(가운데) 동문과 부인 아그네스 김 여사가 유펜의 한국학 연구기관인 ‘제임스 주진 김 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다. 지난 2003년엔 필라델피아 박물관 내 한국관 설립 기금, 2017년엔 서재필

기념재단 등에도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북가주 류대섭 동문(공대 58), 모교에 16만 달러 기부

북가주에 사는 류대섭 동문(공대 에너지자원공학과58)이 서울대에 '류대섭 박현숙 기금'을 설립하고 16만 달러를 기부했다.

류대섭 동문은 지난 11월1일 서울대 총장실에서 열린 기부 감사패 전달식에서 유홍림 총장에게 감사패를 받은 후 "내가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받은 혜택이 많기에 이를 돌려주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대섭 동문의 부인 박현숙 여사도 서울대 동문으로 기금은 에너지자원공학과(80%)와 박현숙 동문이 졸업한 사범대 지리교육과(20%)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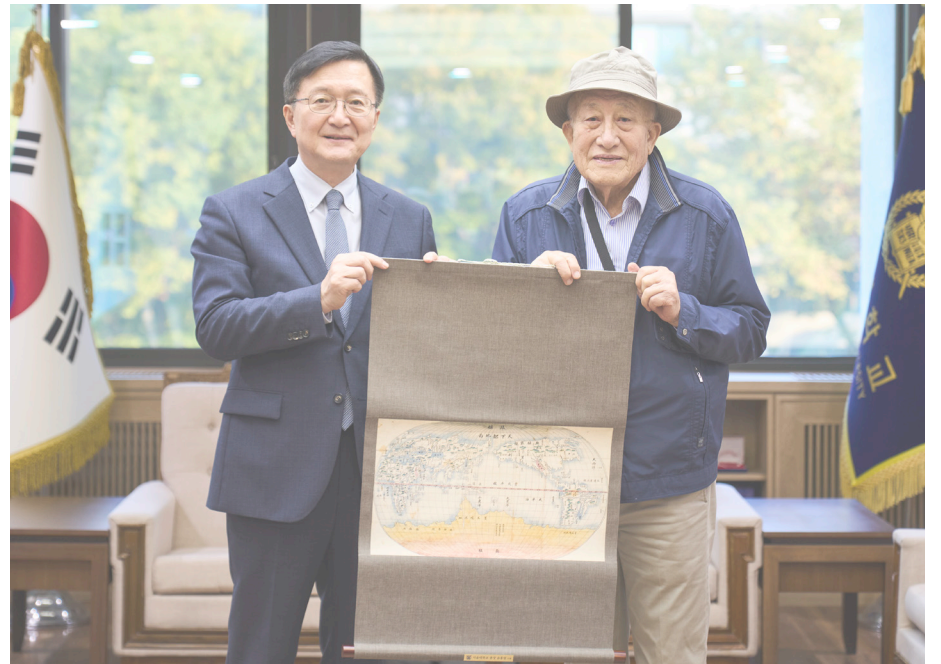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공대 학장, 사범대 학장, 에너지자원공학과장, 지리교육학과장과 서울대 발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류대섭 동문 부부가 거액을 기부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류대섭 동문은 1971년 미국으로 건너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40년 이상 근무했으며 발파안전, 광산개발, 터널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은퇴했다.

민기복 에너지자원공학과장은 이날 "류대섭 선배님의 대화를 통해 국내에 계실 때의 각종 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자원개발, 안전사고, 지하터널굴착 및 통기, 발파안전에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류대섭 선배님과 같은 최고의 엔지니어가 모교 졸업생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류대섭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기부금을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육 연구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류대섭 동문에게 기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남가주 한홍택 동문, 모교에 10만달러 추가 기부

남가주 한홍택 동문(공대 60)이 11월 서울대 공대에 10만달러를 기부했다. 한홍택 동문은 4년 전 한홍택, 백훈(미대) 부부 이름으로 모교에 '한백장학 기금'을 설립해 1백만달러 기부를 약정하고 매년 10만달러씩 출연하고 있다.

이번에도 서울대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을 통해 서울대학에 10만달러를 추가기부하면서 누적 기부금액은 40만달러가 됐다.

이 기부금으로 매년 공대 장학생을 선발해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UCLA 교수를 역임한 한홍택 동문은 미주동창회 장학사업에서도 장학위원장을 맡아 동문 지명장학금제를 운영하면서 미국내 2세, 3세 한인 대학생들에게 매년 1만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다.



한홍택·백훈 동문 부부

워싱턴주 이명자 동문의 코너스톤, ARPA 그랜트 받았다

16년 넘게 의료 사각지대 한인들 무료 진료
청소년 30명 선발, 성장 돕는 프로그램 실시

워싱턴 지부 서울대 동문들이 시작하고 동창회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워싱턴주 무료 진료소 코너스톤 클리닉(대표 이명자)이 최근 스노호미시 카운티로부터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청소년 그랜트를 받는 것이 확정됐다.

워싱턴 지부 동창회 장학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명자(간호대 74·사진) 대표는 "ARPA Grant를 받기로 결정된 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건 강한 정서적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모색했다"며 "청소년 30명을 선발해 3단계에 걸쳐 청소년



년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세

워갈 수 있도록 믿을 만하고 본받고 싶은 멘토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요점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인은 물론이고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코너스톤은 지난 16년 동안 시애틀 남쪽과 북쪽에서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두차례씩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내과 전문의인 이명자 동문은 코너스톤 설립 당시부터 의료 봉사를 해왔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usa17@gmail.com

“함께 한 43년, 아내 덕분에 꿈꿔왔던 작은 소망 모두 이뤄”

우리는 동문부부

이규상(약대 74) · 오정은(미대 76)

동문들 중에는 서울대 캠퍼스 커플로 인연을 맺어 소울메이트처럼 같은 꿈을 꾸며 수십년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의 높고 낮은 파도를 헤치며 해로하고 있는 동문 부부들이 적지 않다. 동문 부부 러브 스토리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오죽했으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부부가 순애보를 쓰게 된 곳은 강원도 ‘인제 원통’이다. 70년대말만 해도 인제 원통을 가려면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5시간 넘게 달려야 한다. 그것도 도시를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가 계속 이어진다. 부부는 이같이 열악한 곳에서 사랑을 키웠다. 러브 스토리를 몇 권이나 쓰고도 남았을 터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동생(이규향)이 미대를 다녔는데 동기 여학생을 제게 소개해 줬어요. ‘딱 오빠 스타일’이라며 한 번 만나보라고 하대요. 처음 만난 순간 ‘아, 내 소울메이트’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우린 그렇게 2년 여를 캠퍼스 커플로 지냈습니다.”

- 강원도 인제 원통과는 무슨 인연이?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느라 군복무를 미루고 있었어요. 군대문제를 해결해야 여권신청이 가능한 시절이어서 서둘러 입대하게 됐지요. 훈련 마치고 배치된 곳이 강원도 12사단입니다.”

- 부대 주둔지가 인제 원통이군요.

“네, 맞아요. 오죽했으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산세가 험하고 군생활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인제와 원통은 조선 17대 임금 효종이 청으로 끌려가면서 생겨났다는 ‘쌀’도 있을 정도예요.”

약대를 나왔지만 제 주특기는 소위 ‘일빵빵’(100)으로 불리는 소총수였어요. ‘죽지 않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 왔었나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나요. 그 먼 곳을 한달에 한번은 꼭 면회를 와줬어요. 남자가 군대가면 여자가 ‘고무신 바꿔 신는다’는 말이 유행했지만 아내는 일편단심이었어요. 30여 차례는 왔는데 그중 10번은 면회가 안돼 헛탕을 쳤어요. 힘든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내의 공이 컸습니다.”

- 삼청교육대에서도 근무했다는데.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군부대 곳곳에 만든 수용소예요. 불량배 소탕과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이규상, 오정은 동문 부부와 아들.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순애보를 쓴 부부 미대 여동생이 소개 “딱 오빠 스타일이야” 집짓는데 10년, 기초공사에 돈 다 쏟아부어 PC 회로판 창업, 약국은 패션아일랜드에서

곳이지요. 우리 부대에서는 6.25 격전지인 펀치볼 인근에 텐트를 치고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장갑차가 두대 배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전과자인지는 모르지만 감금된 분들이 일반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5공화국의 치부를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 미국서 첫 직장이 컴퓨터 회사라고 들었어요.

“1981년 5월 결혼해서 이듬해 3월 미국에 왔어요. 먼 친척이 운영했던 ‘Pioneer Circuits’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보드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얼마 후 나와서 독립, 창업했어요. 구리 회로판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수요가 많았어요. 처음엔 무척 힘이 들었지만 군 복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지요. ‘(군대에서도 버텼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8년 동안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

다. 이란계 약사에게 넘기고 지난 1월 은퇴했습니다.”

-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집 뒷마당에서 아들을 결혼시킨거요. 애나하임 힐스의 지금 사는 집을 저희 부부가 지었거든요. 뒷마당 공사를 미루다가 아들 결혼식을 하느라 뒤늦게 완공했지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흠스윽 흠’... 우리 부부의 땀과 열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 집을 지었다고요?

“네. 원래는 맘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달이 깨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커뮤니티에 빈땅이 있는 거예요. 경사진 땅인데 문득 ‘커스텀 하우스’를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땅이 비탈져서 기초공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어요. 설계와 기초공사하는데만 4~5년 걸렸습니다. 돈 벌어서 또 짓고...”

경사진 땅이어서 집이 4층짜리가 됐어요. 휴~. 그 고생이란 말도 못해요. 집 짓는게 ‘인제 원통’의 군 복무보다 더 어려웠던거 같아요. 2002년 공사를 시작해서 딱 10년 걸렸습니다. 집 짓고 싶은 동문들께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부부 다툼이 없었겠네요.

“물론이지요. 4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 덕분에 우리가 꿈꿔왔던 작은 소망들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놓고 있던 골프 클럽을 다시 잡아볼 생각입니다. 집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쳐요. 하하하.”

습니다.”

- 약국은 어디서 오픈하셨나요?

“뉴포트비치 패션 아일랜드에서 했어요. 두 군데서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



이규상 동문은 자신이 직접 지은 집 뒷마당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게 된 것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해득실 따지는 트럼프, 불확실성 더욱 커져



신찬웅(외교학과 94)
고든 칼리지 정치학 교수

2000년대 들어 쇠퇴 조짐을 보여온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냉전 구도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실리적이면서 신중한 외교 안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소련과의 냉전 종식 후 10여 년에 이르는 20세기 후반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는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와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 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협력과 평화적 분쟁 해결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냉전 기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공통된 전략 기조로 자리 잡았으며, 냉전 이후에는 대안이 없는 국제 관계의 유일한 작동 원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와 그 대응으로 치러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그 영향력과 정당성이 의문시되었고, 2016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해성처럼 등장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은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행태이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또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가 급진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었다.

첫째, 트럼프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주도해 온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탈퇴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둘째, 트럼프는 유엔(United Nations)이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

트럼프 집권 2기 한반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

단 수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화당도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추진될 정책들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현재 고든 칼리지(Gordon College, MA) 정치학 교수를 하고 있는 신찬웅(외교학과) 동문이 트럼프 2기 국제 안보, 특히 한반도의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zation)와 같은 다자적 협의체 보다는 개별 국가간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잦아,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하고 전자를 선호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도덕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 1기 외교정책은 생각만큼 그 실질적인 여파가 크지는 않았다. 임기 초반에는 주류적인 접근을 선

럽트 2기의 정책은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다만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트럼프의 태도는 주변국가들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첫 임기 동안 무기 판매 및 군사 훈련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국의 우선 순위가 아니며, 한번 큰 실망을 경험한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립을 심화해왔다. 따라서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관계 또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0월 한 대담에서 자신이 대통령이였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얼마전 양국이 타결한 액수의 약 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이는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이 더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외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미국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이상과 현실, 가치와 이해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이며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집착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나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미중 간의 갈등을 신냉전에 비유하며 한국이 미국의 편에 굳게 서서 중국을 적대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중 관계는 냉전기 미소 관계와는 그 규모나 성격 상 다른 점이 많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의 중요성의 더욱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외교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 양극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야 모두 정파적 이익 보다는 국가 이익을 앞세울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정책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설득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책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현재 미국 우선순위 아나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듯

호하는 경험 많은 관료들과의 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임기 후반에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는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0년 선거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의 복귀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면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시대는 급격히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음을 선언하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복원을 시도했지만, 그의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은 사실상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의 주요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 역시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다시 트럼프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국한하여 보면 트

대만이 방위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 간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그의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큰” 결판을 낼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북한과의 관계는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전해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까지도 낳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북미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미

보호무역과 반이민 정책은 물가 인상 요인



김선웅 교수
(공대 76 · MIT 경제학 박사)
위스콘신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집권 2기 우리에게 미칠 경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민, 안보, 경제, 무역,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하게 변화를 몰아 부치겠다는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변화가 야기할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공대(86)를 졸업했지만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현재 위스콘신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김선웅 동문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보호 무역, 반 이민, 세금 감소, 기업 규제 완화, 분쟁 국가 지원 감소 등의 경제정책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첫째, 보호 무역은 물가 인상을 야기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증가 시킬 것이다.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왔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무역의 확장을 앞장서서 주도하여 왔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 라든지 개발도상국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촉구하여 왔다. 한편 미국의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로 인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개방적인 금융 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자본으로 충당해왔다. 그로 인해 미국 기업, 특히 제조업 회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품과 완제품을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특히 세계 경제의 공장이 되어온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동의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 군사, 과학 기술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무역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두 나라의 경쟁과 견제 하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선택을 강요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 이민 정책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자국민의 고용, 특히 불법 이민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수익률 높아지더라도 지속적인 고물가는 경제성장 방해할 것

저소득층 미국인의 고용 기회를 확장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흑인과 히스패닉 그룹에서 약진한 것은 아마 반 이민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높은 관세와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셋째, 세금 감면, 반 규제 등의 친 기업 정책은 미국 기업의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증권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러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

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다행히도 강한 미국 경제를 이어 받았다. 중국과 유럽 경제가 팬데믹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는 팬데믹의 인플레이와 불황을 극복하고 연착륙에 성공하였

다. 따라서 세금 감면 등으로 생기는 재정 적자의 증가를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강한 미국 증권 시장으로 인한 대외 자금 유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 시장의 강세가 계속 될 지의 여부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부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고물가와 보호 무역 주의는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넷째,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상승을 예상케 하는 만큼 연준 (US Federal


Reserve)은 기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조심스러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의 하락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면 미국 자본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고 강한 달러(strong dollar)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한 달러는 미국의 미국 상품의 수출을 어렵게 하지만 미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적자를 낮추겠다는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임무에서 손을 떼고 선택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동시에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UN이나 NATO등의 제도화된 다자간 협력단체 (multilateral organizations)보다는 양자 간의 협상 (bilateral negotiation)을 통한 실용주의적인 외교와 국제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 정치 경제면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들이나 대기업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증가하면서 승자와 패자간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따르는 것 보다, 소수의 충성도를 이용하여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밀어 붙이려는 트럼프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이제 시작되는 그의 2차 정권은 예상된 불확실성 (predictable uncertainty)을 가지고 있다. 마치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에 예정되어 있는 미식축구 게임에서 처럼 쿼터백의 손을 떠난 공이 50 yard touchdown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fumble이 되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DONORS

23.11.01. ~ 24.10.31.

CREATE **T** **W**
 내일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서울대학교발전재단미주재단
 전화 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시는 기부자

100만불 이상 이효상 배수옥 50만불 이상 John M Liew 10만불 이상 노명호 박민식 박금옥 박종수
 양남주 이광선 한홍택 & 백훈 Han Kim 10만불 이하 권정덕 김성열 전후자
 서중민 신두식 윤영희 이수녕 이정은 이주영 임낙균 정인숙 조두연
 홍선경 Benjamin & Vivian Hong Ralph N Wharton 1만불 이하 강동원
 강창만 김경숙 김영주 김원명 김태환 방효준 송원길 양승귀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오인환 원정윤 이만택 이재원 이정필 이종성 이진웅
 임상진 장병진 & Sharon Chang 최준희 한귀희 한종하 한태진
 한혜순 익명 1명 Dr. Hyung Tae Choe & Gertruda D. Chung Choe
 1천불 이하 김영기 김용두 김우영 김정순 김희자 나정자 민희숙 박선희
 박숙희 박은주 박혜란 백옥자 성옥경 안상금 유광현 윤국희 이말순
 이은희 이재길 이진희 조무상 한승순 홍준표 홍지복 Sun Seog Kim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 참여 신청서

저 는 원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년 입학

남가주 총동창회 올해도 멋진 ‘신년음악회’ 연다

1월5일 UC 어바인 캠퍼스 바클레이 시어터
금난새 지휘, 지역 한인 초청해 모금 활동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신년 음악회를 연다.

동문들을 위한 소규모 음악회가 아니라 한국의 유명 지휘자 금난새씨를 초청해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지역의 대표 공연장인 UC어바인 캠퍼스내 바클레이 시어터에서 여는 수준있는 신년음악회다.

내년 1월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바클레이 시어터는 800여 객석 규모로 동문뿐 아니라 지역 한인들도 초대한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신년 음악회는 김

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서울대 동문 모임이 단순한 친교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으면 하고 특히 새해는 나눔으로 열고 싶다”며 지난해 처음 기획해 연례 행사로 이어가려는 음악회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사업차 남가주에서 서너달을 머물며 남가주 동창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음악회 티켓은 무료지만 십시일반 성금을 받아 지난해에는 2700달러를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남가주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도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 동문이 적극 나서 실력있는 연주자들을 모집해 LA체임버 오케스트라를 꾸렸고 역시 동문인 이윤석(하모니카), 노은아(해금), 지익환(기타) 연주자가 솔로리스트로 협연에 나선다.

프로그램은 신년음악회답게 경쾌하고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들로 꾸며졌다. 헨델의 ‘시바 여왕의 도착’,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무디의 ‘불가리안 웨딩 댄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중 1악장, 정재민의 ‘도시 아리랑’, 비발디의 ‘기타협주 곡D장조’, 보시의 ‘골도니아니 간주곡’ 등을 선보인다.

문의: snuaconcert2025@gmail.com



“기적처럼 팀워크 척척 ... 50년사 골드북 마무리”

임춘택 회장 “알찬 내용, 읽는 즐거움 커”
내년 2월 정기총회서 동문에 배포 예정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골드북을 제작하고 있다. 내년 2월 남가주 회장 이취임식에 맞춰 배포할 예정이다.

“입기를 시작하자마자 50주년 기념 책자(이하 골드북)를 만들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49대 회장이기에 50주년 기념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문들을 믿고 일단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남가주 상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임춘택 회장은 “올해안에 못 끝낸다고 쳐도 내년에 끝내려면 시작은 올해 내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1년에 굵직한 행사만 10개가 되니 무척 바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사 하나에 300명의 동문이 참가하는데 점심 식사로 30달러 짜리 케이터링만 잡아도 1만 달러가 들어가는 행사가

10개나 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누구를 섭외할지, 어떻게 발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만 공대가 만든 기념 책자를 본 적이 있고 이미 50주년 책자를 만든 타지역 동창회의 기념집을 참고할 수 있었다.

만들기로 마음을 먹으니 기념 책자로서의 의의말고도 독자들이 밤새 읽을 만한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났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직업이 회계사인 덕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산 뽑기였다. 일단 3만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다가 제작비용을 뺀 모금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 총 예산을 6만 달러로 잡았다. 책 퀄리티를 좌우할 편집비도 책정했고 광고 인센티브도 고려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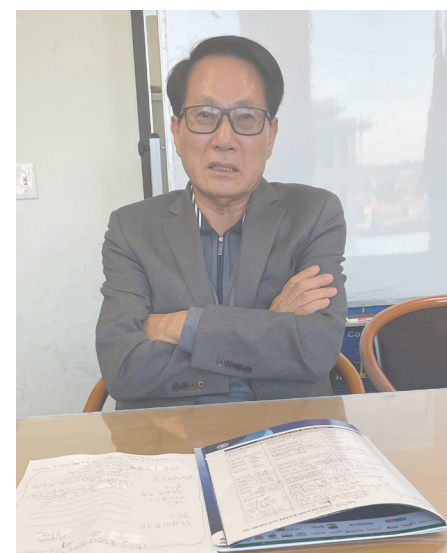
래서 본격적으로 편집에 나선 동문들에게 지난 7월부터 매달 사례도 할 수 있었다.

LA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미주동창회보 편집국문을 한 박용필 동문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를 타진했는데 흔쾌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5월 말에 발간위원회 첫 미팅을 줌으로 가졌다. 그런데 미팅에 나온 사람들이 차기 회장에게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예쁘게(?) 마무리 짓자는 의견을 냈고 결국 올해 내 마무리로 방향이 정해졌다.

동창회의 특출한 동문들을 인터뷰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발간 소식이 알려졌고 모금도 쉬워졌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약정한 사람도 인터뷰가 끝나고 발간 취지에 적극 동의해 3000달러짜리 수표를 써주기도 했다.

골드북의 전체 쪽수는 400페이지 정도이고 한 부당 50달러를 받을 예정이



다. 타주에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 50달러를 보내오면 내년 2월 페덱스로 우송할 계획이다.

문의: (213)215-0446(임춘택)
장병희 편집위원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40여 동문 참석 성료



같은 학번 혹은 이웃 학번들끼리 팀을 이뤄 팀대항으로 진행되는 제2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난 11월2일 남가주 치노힐스 소재 로스세라노스 컨트리클럽 사우스 코스에서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각팀에서 가장 잘한 3명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1위팀은 80학번팀, 2위는 88학번과 89학번으로 이뤄진 889팀, 3위는 84학번팀이 차지했다. 라운딩에 앞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 각 지역 동문들 “우리는 서울대인 한가족”

각 지부별로 돌아본 2024년

는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대 미주 동문들은 끈끈하게 뭉쳐 살아가고 있다. 올해 서울대 미주 동창회들의 활동을 알아본다.

워싱턴주 지부

2월3일 임헌민(공대 84) 회장 댁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 30명이 참석해 윗놀이 등 즐거운 게임을 하며 한 해를 시작했다. 하계 야유회는 8월10일, 역시 30명이 참석했고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일행이 참석해 장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2월8일 송년회도 임 회장 댁에서 열린다.

매달 두번째 수요일에 동문회 세미나가 열렸다. 4월5일에는 고 고광선(공대 57) 동문의 부인 양남주 여사가 워싱턴 주립대 한국학센터(소장 하용출 문리대 67)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는 행사가 있었다. 6월1일 김경혁(자연대 92) 동문의 부인 소프라노 김유진씨가 회장인 워싱턴음악협회가 제 4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승윤(공대90) 동문이 아마존에서 알루미늄 그릇을 판매하는 사업(kitcheneasy.com)을 시작했다. 이명자(간호74) 동문이 대표인 코너스톤클리닉이 그랜트를 지원받아 청소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홍세정(자연98, 의예 2003)동문이 피부과 클리닉을 Bothel시에 개업했다. 임헌민 회장의 자제가 치과 클리닉(Redmond Dental Clinic)을 개원했다.

필라델피아 지부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지부(회장 심희진 음대90)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5월13일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해 17명이 5개 조로 나눠 경기했다. 1등은 최정웅 동문이 차지했고 빈종훈 동문(공대95) 부부가 처음 동창회 행사에 참석했다. 10월 28일에 열린 추계 대회에는 18명이 참석해 최유섭(약대68) 동문이1등을 차지했다. 6월15일에는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첫 낮시간 총회였고 심희진 회장이 연임됐다. 엄종열(미대61) 동문의 특강 ‘민족정체성과 재외동포 자녀 뿌리 교육’ 이 있었고 주소록을 배부했다.

80년 이후 학번으로 ‘관악세대’ 라는 소모임을 시작했다. 총 4번의 모임에 매번 5~7명이 모였다. 총 23명의 단독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영선(공대52) 동문이 10월19일 타계했다.

조지아 지부

또 다른 봄타운 조지아주 지부는 지난 7월 8명의 동문으로 제 24대 회장단(회장 최화진 음대85)을 시작했다. 10월19일 가을 야유회를 열었는데 50년대 학번부터 20대 젊은 유학생 동문까지 12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11월23

일에는 조지아텍에서 수학중인 20~30대 동문들이 참석하는 ‘후배들과의 만남’ 행사가 오찬과 함께 개최했다. 김웅식(의대48) 동문은 8월9일, 김강진(문리)동문은 9월16일, 김용건(문리48) 동문은 11월8일에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연말 행사는 12월14일에 열리고 내년 3월에 기금 모금 행사를 계획 중이다.

뉴잉글랜드 지부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최진민 공대71)는 1월13일 신년 교례회를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매사추세츠 버링턴 소재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에서 개최했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2월16일(김유나 동문, 현대 즉흥 음악의 이해)과 3월15일(김경수 동문, 의료 인공지능, 지금까지의 발전)에 각각 줌으로 열렸다. 등산을 좋아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산우회는 봄나들이 트래킹(3월30일)에 12명, 봄맞이 산행(4월27일)에 7명이 참석했다.

정기 총회, 여름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이 6월15일 관악회원, 서울대 병원 교수, 장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타계한 동문은 정태진(의대53), 김성열(의대62), 김용구(공대66, 7월3일), 김정선(문리66, 8월29일) 등이다. 김정선 동문은 뉴잉글랜드 지부장(18대), 산우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 지부(회장 용정식, 총무 양한승)는 8월24일 미네소타대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를 10명(신입생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9월21일에는 가을 야유회를 동문과 가족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11월9일에는 여성 동문 모임을 가졌는데 장년층 3명과 청년층 8명이 참석했다. 12월14일에는 연말 총회 및 송년 파티를 가지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저녁 식사와 강연, 장학금 수여, 게임 등의 순서가 진행된다.

밴쿠버 지부

캐나다 밴쿠버 지부(회장 성영주 간호86)는 12월14일 총회 및 송년 모임을 EXECUTIVE PLAZA HOTEL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또한 2024년 서울대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 장학금과 미주 장학금이 수여되는 순서가 있다.

워싱턴DC지부

워싱턴DC지부(회장 정세근 자연대82)는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

올해도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이민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하지만 국적은 바뀌도 졸업한 학교 살았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단결했다는 얘



샌디에이고 동문회 야유회가 지난 5월 잔디밭과 바다가 만나는 미션베이 파크에서 열렸는데 동문들이 해안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포즈를 취했다.



워싱턴 DC 동창회 바둑 동호회는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교포들이 참여하는 바둑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앞두고 동문들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별세한 뉴잉글랜드 김정선 동문(문리대 66). 암 투병 막바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르완다 어린이 암환자를 위한 모금 전시회를 열어 그의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했다.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5월 열린 골프대회에서 경기를 앞두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지아 동문들이 지난 10월19일 열린 가을 야유회에서 임우준 동문의 건강 체조 강의를 들으며 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함께 놀고 배우고 여행하며 “덕분에 즐거워요”



시카고 골든클럽 동문들은 매해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올해는 캐나다 로키를 방문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 있는 고풍스런 주 의사당 앞에 모인 동문들.



뉴욕 동창회는 지난 10월 동문 합창단을 결성했다. 연말 송년파티 데뷔를 목표로 처음 만나 연습을 시작한 뉴욕 동문들.



플로리다는 더운 여름에는 동문회 활동이 잠잠한데 지난 7월에는 뉴욕에서 계동회(치대) 동문이 방문해 모처럼 함께 골프를 즐겼다.



워싱턴주 임현민 회장이 지부를 방문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을 집으로 초청해 지역 동문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각지부 송년 신년 모임 일정

주최 지부	일시	장소	연락
필라델피아 동창회	12월07일 정오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215.206.9098
북가주 동창회	12월07일 오후 5시	Westin Hotel(Palo Alto)	408.464.4502
뉴욕 동창회	12월07일 오후 4시		201.965.7759
워싱턴 동창회	12월08일 정오	임현민 회장 자택(10940 250th Ave NE, Redmond, WA 98053)	425.444.3899
남가주 공대 동창회	12월13일 오전11시30분	작가의 집(2410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909.762.2220
워싱턴DC 동창회	12월14일	Springfield Golf Club, VA	703.785.8467
밴쿠버 동창회	12월14일 오전11시	EXECUTIVE PLAZA HOTEL	604.341.8808
조지아 동창회	12월14일 오후5시	Yi Fan Event Center (6000 Medlock Bridge Pkwy, St F100, Johns Creek, GA 30022)	828.242.7150
미네소타 동창회	12월14일 오후 5시30분	미네소타 대학 Coffman Union, president room	610.952.3673
시카고 동창회	12월15일 오후4시	시카고 한인문화원	847.922.4089
뉴잉글랜드동창회	01월11일 정오	세븐스프링스 클럽하우스(Burlington, MA)	617.877.0387
미시간 동창회	01월25일 오전11시30분	미시간 한인문화회관(Southfield)	248.595.2836
남가주 총동창회	2월1일 정오	Double Tree Norwalk	818.489.7892

트 버지니아를 아우르는 지부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상반기에는 설날 모임(2월23일), 춘계 골프대회(4월12일), 춘계 테니스대회(4월17일), 춘계 피크닉(5월11일)을 개최했다.

후반기에는 챗GPT 세미나(8월10일), 바둑대회(9월14일), 추계 피크닉(9월21일), 추계 테니스대회(9월28일), 북클럽 모임(10월19일), 추계 골프대회(11월2일)이 연달아 개최됐다. 연말 파티는 12월14일에 열린다. 이영수(공대59) 동문, 강필원(공대51) 동문이 별세했고 방은호(약대) 동문이 100세로 타계했다. 이외 지부에서 최근 타계한 동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재국(공대65), 안선미(농대65), 곽명운(61), 강경구(사법49), 윤경의(공대57),유시명(상대62), 김용철(공대71),전기순(상대49), 변만식(사법49), 임낙중(의대53), 김용덕(의대53), 백행남(공대60) 등이 있다.

샌디에고 지부

샌디에고 지부(회장 송오석)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문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2월에는 샌디에고 미술관이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기획한 한국미술 특별전, Korea In Color 전시회를 단체 관람했다. 5월, 10월에 봄, 가을 야유회에서는 바닷가와 호수를 낀 공원에서 걷기 대회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6월 동문 골프대회, 7월 별자리 보기 캠핑 행사를 통해 별자리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에 송년회가 열린다. 올해 이면기(공대 64, 6월 25일) 동문, 김병목(의대 45, 11월 6일) 동문이 타계했다.

미시간 지부

미시간 지부(회장 이광진 공대81)는 2025년 신년 모임을 1월25일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미시간 지부의 첫 행사는 지난 1월20일 열린 설날 행사로 40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2월13일에는 고국화(공대56) 동문이 진행하는 세계 일주 경험에 대해서 소개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정기총회를 겸한 피크닉 행사가 7월13일 동문과 가족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대 회장으로 이광진 동문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이날 강형준(자유전공 10) 동문, 이상현(공대10) 동문이 미시간 지부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10학년 동문으로 기록됐다.

8월10일 건강세미나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원종수(의대 69) 동문의 건강 강연에 이어서 고광국(공대54), 고국화(공대56) 동문 부부의 장학금 수여식이 열려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8월29일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일행이 미시간 지부를 방문하여 이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상강 회장은 2000달러의 지

부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9월29일 조영현(음대95) 동문이 MSU캠퍼스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10월2일 제2회 미시간 서울대 동창회 골프대회가 밀포드에서 개최됐다. 4팀이 참가해 장병진(공대61)동문, 신광용(문리70) 동문, 미세스 신봉애로 구성된 조가 1위를 차지했다. 10월27일 문광재(의대68졸업) 동문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문 동문은 9월22일 81세로 타계했다.

북가주 지부

북가주 지부(회장 김범섭 공대79)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북가주 음대 동문회는 콩쿠르를 개최해 수상자 음악회를 4월 2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었다. 8월 24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공원에서 여름 야유회를 개최해 동문과 가족들 100여 명이 모였다. 류대섭(광산학54) 동문이 모교에 2억을 기부 ‘류대섭(광산)박현숙(지리 교육) 장학기금’ 을 마련했다.

시카고 지부

시카고 지부(회장 조규승)는 첫 이사회를 4월14일 70여 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5월4일 춘계 골프대회를 Hilldale Golf Club에서 개최했다. 동문과 가족 등 30 명이 참석해 5개 조로 경기를 치렀다. 김재환(사법72)동문이 우승했다. 6월22일 12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간호대 재학생 4명이 6월27일부터 7월19일까지 열린 일리노이주립대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리노이를 왔다. 7월13일 간호대 동창회(회장 유기정 72) 주최로 환영행사를 가졌다. 7월2일에는 시카고 골든클럽 동문 50명이 당일치기로 밀워키 카운티 동물원을 다녀왔다. 또한 골든클럽 회원 34 명이 9월10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캐나다 로키 여행을 가졌다. 60~80대로 구성된 골든클럽은 매월 목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8월10일 음악 동우회 40여 명은 시카고 심포니 라비니아 콘서트에 참석했다. 8월27일에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일행의 시카고 방문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9월7일에는 추계 골드대회 열려 26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10월13일 시카고 한인 문화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 초청 가을 음악회 겸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과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2월5일 골든 클럽 송년 오찬이 열린다. 12월15일 총회 및 송년 파티를 개최한다. 이날 장학금 수여 순서도 진행된다. 김신웅(사대59), 최혜숙(의대53), 최영화(음대50), 한상호(의대56) 동문이 타계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뉴욕 동창회 김종율 박사 별세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친 뉴욕 동창회 큰 어른’

머시 대학 교수를 거쳐 부산 동서대학 총장을 역임한 김종율 박사(사대 51)가 지난 1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뉴욕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던 고인은 김정필 뉴욕 동창회 회장, 권정덕 뉴욕 동창회 이사장, 홍종만 골든클럽 회장, 신응남 전 미주 동창회 회장 등 많은 동문, 후배의 애도 속에 19일 뉴욕 Hartsdale, Ferncliff Cemetery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故 김종율 박사는 1932년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에서 태어나, 1955년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59년 미국으로 건너온 뒤, 1974년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C 교육학박사를 하고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친 교육자이자, 한미 양국의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에 헌신한 학자였다.

1989년에는 뉴욕 머시 칼리지에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1996년에는 한국 국공립학교 최초로 미국 원어민 대학 졸업생 50명을 선발, 서울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에 배치, 지도했다. 1994년~1995년 동서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으며, 뉴욕 평통자문위원, 미의회 태평양 지구 소위원회 위원장 자문 위원 등을 역임했다.

18일 장례식 예배에 참석한 강근조(사대 60) 동문은 “김 박사님과는 50여 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모교 사대 선배를 넘어 친형님 같은 존재이셨다.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같이 했다. 많은 사랑을 주셨다”면서 고인과 추억을 회상하였다. “지난 3년 여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다. 매일 아침 요양원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는데 2주 전에는 간호사가 음식만 두고 가 버려서 제가 식사를 드시게 도와드리고 왔다.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니셨던 박사님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는다. 지금의 슬픔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뉴욕 동창회에 큰 별이 졌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홍종만(공대 64) 골든 클럽 회장은 “선배님은 골든 클럽의 산 역사다. 지난 2009년 이준행 선배님이 골든 클럽 4대 회장으로 추대되자, 두 분은 골든 클럽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함께 구상하고 추진하셨다. 단순한 골프 동호모임 형태에서 발

전하여, 2010년 4월부터 뉴스레터 발간, 하이킹, 골프여행, 바다낚시, 야외 피크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2년 9월, Pocono Mt Airy 골프 여행 중에 쓰러지셨다. 결국 뇌수술을 받으셨고 요양 병원에 계시다가 타계하셨다. 3년 동안 선배님 간병에 전념하셨던 김옥수 사모님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뉴욕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동창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 선배님은 후배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분”이라고 말했다.

故 김종율 박사는 뉴욕 브롱스 한인 교회와 웨체스터 교회 장로로 봉사하면서 수많은 한인 교민들을 도우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1986년 뉴욕한인회 발행 ‘미국 속의 한인사회’ 책자 발간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자서전, ‘비온드 더 파러웨이 마운틴스(Beyond the Faraway Mountains)’를 발간하기도 했다. 86년의 삶을 담은 영문 회고록은 일제 강점기에 보내야 했던 어린 시절, 6.25 한국 전쟁, 1959년 유학을 와 1974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기까지故 김종율 박사의 인생을 고스란



2014년 뉴욕 골든클럽 파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 김종율 박사.

히 담아낸 책이다. 유달리 가족 사랑이 깊었던 고인은 두 딸과 세명의 손주에게 자신이 걸어온 지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에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가며 3년여 간의 작업을 통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던 것.

미주 동창회 종신 이사이기도 한故 김종율 박사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수 여사와 딸 Michelle(사위, Mitchelle 손녀 Katie, 손자 Davis), 아들 Robert(며느리 Aubrey, 손녀 Seryn)가 있다.

글=이영주(농생대 83 · 편집위원)
사진=홍종만(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 회장)

“시간과 재능 나누는 동문회 되도록 노력할게요”

하트랜드 신임 회장된 이주현 동문(미대 92)

하트랜드 서울대 동창회가 지난 10월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주현(미대 92) 동문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이주현 신임 회장은 동창회 사랑이 남다른 ‘동창회 일꾼’으로 전임 회장 임소연(음대 91) 회장때는 총무를 맡고 그 전에는 재무를 맡는 등 동문들의 친목과 동창회 활성화에 앞장 서왔다. 언니 이주희(음대 89) 동문 역시 워싱턴DC 지부에 활발히 활동하는 ‘동창회 일꾼’이다. 이주현 동문이 직접 자기 소개 글을 보내왔다.

인생을 bullet points로 정리할 수 있다면, 저의 인생은 다음과 같을것 같습니다. 1973년 이 세상에 태어남
1980년 신용산국민학교 입학
1986년 서울 예원학교 입학
1989년 서울예술고등학교 입학
199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입학
199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이론 전공 대학원 입학
2000년 카네기멜론 대학원과정 입학
2003년 결혼후 미국 캔사스로 이민
2003-2023년 캔사스에서 아이 둘 키우기
2024년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하트랜드지부 회장
아니 뭐 이런 큰 점프가 있는지요. 보통 회장님 소리를 들으려면 흰머리도 좀 있

고, 지혜에 비례하는 뱃살도 두둑히 겹비 하면서 돈도 평평 쓸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Ready or not, here I come!

하지만 저 간단하게 요약된 20년의 아이키우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인으로서, 서울대인으로서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아이들만 보내면 뭐하나 싫어서 시작한 한국학교 교사가 그 시작점이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제일 싫어했던 국어와, 부모님의 직업이라서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교사를 합친 한국학교 교사라는 자리는 저를 훈련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교포로서 가져야할 정체성, 그리고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미국시민으로서 제가 사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하는가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 대학들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을 뽑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Asian Alumni들은 본인의 성공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졸업한 학교나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에 발끈한 이유는 아마 이것



KC아리랑 행사 때 한복을 입고 남편과 함께 한 이주현 동문.

이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한 자리 차지해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사회에 좀더 한

국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BTS와 함께 한류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수업을 가르치고, 캔사스한인회에 들어가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문화 알리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으면서 얼마전 캔사스시에 있는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와 손잡고 KC Arirang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고, 1000명이 넘는 관객이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Korean War이후 잿더미가 된 한국은 수혜자였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한국인으로 지금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하던데, 이 행복한 일을 내가 사는 사회에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창회의 가장 큰 논점은 “어떻게 젊은 동문들을 동참시키는가”입니다. 젊은 동문들도 이제 recipients가 아닌 contributor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 저희는 너무 많은 혜택과 지위를 누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 바쁘지만, 시간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서울대 동문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회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K-Drama 주인공인 “회장님” 인것 같아 쓰옥 웃어봅니다.

불러주세요, “회장님”이라고!

여성 동문들 모여 “내년 평의원 회의 성공적 개최” 논의

젊은 동문들 위한 온라인 세미나도 계획

미네소타 지부

서울대 미네소타 지부 동창회(회장 용정식)는 11월 9일 티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여성 동문 모임을 갖고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모여 2025년 6월 20일부터 3일간 The Saint Paul Hotel에서 개최될 제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를 준비하는 황효숙 차기회장의 설명을 듣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응원하며 미네소타 동문들이 어떻게 행사를 도울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또한 내년도 활동계획으로 대학원에 유학중인 젊은 동문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토론 경험을 쌓

으며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담소하며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많은 참석자들이 재학중인 미네소타 대학은 지난 70여년간 서울대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1954년 미국 연방 정부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 교육의 재건을 돕기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시작돼 서울대와 미네소타 대학은 의학 공학 농학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에서 추진한 자료 전산화를 통해 libnews umn edu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누구나 그 자료와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석자들은 서울대와 미네소타가 쌓



미네소타 여성 동문들이 모여 내년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아은 70년 특별한 인연을 향후 70년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2025년 1월

중순에 다음 모임을 열기로 했다.
취재 = 박현아(공업화학 88) · 이수정(기계항공 13)



미시간 지부 골프대회

미시간 지부 동문들은 지난 10월 5일 Milford에 있는 Coyote Golf Club에서 제 2회 골프대회를 열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Scramble 포맷으로 4팀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장병진(공대 61), 신광용(문리 70), 신봉애(Mrs. 신광용)로 구성된 2조가 총 -3 타수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다.

개인별 수상자로는 Longest Drive: 안성숙(Mrs. 안제모, 약학 61), 한영신(가정대 86), Closest to the Pin: 신봉애, 임성철(농대 86)



필라델피아 지부 골프대회

필라델피아 지부 동문들이 지난 10월 28일 벅스 클럽에서 추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 날씨 속에 20명에 가까운 동문과 배우자들이 함께 해 골프를 즐기고 경기 후에는 오미자 식

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유섭 동문(약대68)이 1등을 차지했고 2등 최정웅 동문(공대64), 3등 김용식 동문(약대66), 장타상 전무식 동문(수의대61), 근접상 구 진(Mrs.

빈중훈 공대 95), 여자부 1등 정경애(Mrs. 정홍택 상대61) 님이 차지했다. 지난 춘계대회 우승자인 최정웅 동문이 새로운 우승 트로피를 기증해 이날 최유섭 동문(왼쪽 사진)에게 전달됐다.

미주 동문들 홈커밍데이 동해 여행

4일 동해 여행을 즐겼다. 동문들의 동해 여행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10월20일 서울대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한 미주 동문들이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치고 부산, 울산, 경주, 문경으로 이어지는 3박

동문들과 함께 동해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설레

민흥기
(문리대 61·워싱턴 DC)

동문들과 같이 동해 여행을 한다는 설렘을 안고 관광 버스 터미널로 갔다. 첫번째 방문지는 소백산 서남쪽 끝, 황아산 동남쪽에 있는 직지사였다.

직지사는 418년에 세워져 약 16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많은 고승을 배출한 절이다. 여러번 가 보았지만 갈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 장엄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고찰이다

두번째 목적지인 부산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즐비하게 늘어선 아파트를 지나 최고 86m높이로 올라가 송도 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압남공원까지 1.62km 해상 케이블카를 탔다. 올라갈 때는 해가 있어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갔고 내려 올 때는 해가 저해운대 야경을 보

면서 내려왔다. 다른 곳 케이블카 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보아 좋아하는 동문들이 많은데 난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차라리 자갈치 시장을 둘러 왓지결한 풍경을 보았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었다.

다음 간 곳은 울산 광역시였는데 울산은 1970년대와는 완전히 딴 도시가 된 것 같았다. 태화가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아파트... 강따라 4km에 걸쳐 70만 주의 대나무가 이어진 십리 대나무 숲 길을 걸었다. 무슨 벽사이를 걷는 기분이었는데 대나무 직경이 10cm는 넘는 것 같았다.

그 다음 간 곳은 울주군 외고산 용기 마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용기가 전시된 곳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용기가 전시된 용기 박물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민흥기(맨 오른쪽) 동문이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부부와 함께 했다.

불국사가 있는 경주에서 1박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충북과 경북 사이에 있는 문경사재에 이르렀다. 문경에 이르니 사과 향기가 코를 즐겁게 해주었다. 문경은 맨

발로 걷는 황토길로 유명한 곳이다. 예전에는 온천이 있는 찜질방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온천만 남아 찜질방이 그리웠다. 세월이 흐른 내 나이 탓일까?

경주 보문호수 둘레길, 벚꽃 장관일 때 또 오고 싶다



경주 보문호수 둘레길에 선 황효숙 동문.

천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관광한 날이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신라의 고분대릉원내의 천마총, 국보 제31호인 첨성대, 궁궐 유적 동궁과 월지(안압지), 원효대사가 노래를 부르며 지나다녔다는 월정교 등을 관광한 후 투숙을 위해 라한셀렉트 경주호텔로 향하였다.

보문호수를 둘러싼 자연풍광과 최신 건축의 품요로움을 자랑하는 라한셀렉트 호텔은 하루종일 문화유산 관광으로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림같이 아름다운 보문호수의 뷰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침6시반 호텔을 떠

나 총연장 8km의 보문호 산책로인 보문호반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산책길 곳곳에 비치된 조각 작품들이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하였고 잔잔한 첼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산책하는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보문호수는 경주시 동쪽 명활산 옛 성터 아래 만들어진 50만평 규모의 인공 호수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 관광 활성화 위해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79년에 개장하였다. 보문 호반길은 보문호수를 일주하는 둘레길이며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잘 단장되어 있어 하이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문호수 둘레길은 이번 동해 여행 중 가

장 평화롭고 아름다워 다시 한번 방문하여 찬찬히 둘러 보고 싶은 곳이다. 이 길엔 예쁘고 낭만적인 카페가 여기저기 산재하고 나름의 개성을 뽐내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

경주 시내 전체가 벚꽃 천지이지만 그 중에도 보문호수 주위에는 벚꽃이 더욱 많아 4월에는 벚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첨단 기술에 예술적 감각을 더한 조명장치도 보문 호수의 야경에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언젠가 보문 호수의 벚꽃 향연과 환상적인 야경을 즐기며 호수 둘레길을 다시 걸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얼굴에 함박 웃음꽃이 핀다.

동대문 시장에서 동문 부부와 막걸리 한잔 ‘소중한 추억’

우리 부부는 서울에 갈 때마다 관악 캠퍼스 바로 인근에 있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묵는다. 홈커밍데이 서울에 체류하는 4일 간도 호암에서 묵었다. 관악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의 변함없는 친절함, 한식 중식 일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 거기에 저렴한 숙박비까지 서울을 가는 동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한국은 택시비도 저렴해 호암에 묵으면서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

19일 새벽 서울에 도착해 호암에 갔

으나 방이 2시경은 돼야 준비될 수 있다는 말에 광화문으로 가서 서울 시내 관광버스를 타고 돌면서 남산과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구이와 막걸리를 먹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부부와 같이 움직였는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부산, 울산, 경주 그리고 문경으로 이어진 동해 여행에서 눈도 호강을 했지만 입은 더욱 즐거웠다. 야채로만 만든 경주 한정식은 처음으로 맛보는 음식들이었는데 찰밥을 연입사귀로 싸서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었다. 문경에서 먹은 발효 약선 요리도 기억에 남는다.

울산의 발전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선평과 여러가지 산업으로 인구가 700만명이 넘고 현대식 고층아파트의 도시였다.

반면 경주는 여학교때 수학여행을 와 보고 이번이 처음인데 그때의 모습 거의 그대로였다. 다만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커튼을 열고 보게 된 보문 호수의 밤 경치는 마치 꿈에서도 보는 듯 매우 아름다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박종수 동문과 부인 박정윤씨.



울산에 있는 십리 대나무 숲 길에 선 동문들. 강따라 4km에 걸쳐 대나무 70만 주를 심어서 만든 길이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불국사를 방문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일출 명소로 알려진 해안 절벽에 위치한 부산 해동용궁사 앞에 모인 동문들.



미시간 지부 고광국(공대 54)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 이번 여행에 최연장자로 참여했다.



첨성대 앞에 모인 동문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때 지어져 창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부산 해운대 해변 열차를 타고 해안 절경을 구경하는 동문들.

번역은 단지 번역일까? 현지화를 위한 다른 창작일까?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상을 안겨주며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소설이다. 현재 번역 및 통역 전문가로 활동하는 장윤정(법대 84) 동문이 번역 전문가 입장에서 수작의 번역을 분석했다.



장윤정
(법대 84)

2007년에 출간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실제로는 3부작으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며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다. 두 번째 작품은 '몽고반점', 세 번째는 '나무 불꽃'이며 '몽고반점'은 2005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다. '채식주의자'가 단행본으로 처음 선보였을 때 독자들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고 '극단적이며 괴이하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그러다가 2015년 '채식주의자' 영문판이 나왔고 2016년 부커상 최초로 작가(한강)와 번역자(데보라 스미스)에게 공동으로 상이 수여됐다. 저자와 번역자 공동 수상 소식에 번역가로서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되어 우리말 원문과 영문을 모두 찾아 읽었다. 그 과정에서 첫 작품 '채식주의자'의 또 다른 영역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와이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한국문학 및 문화 저널 Azalea 2010년호에 수록된 한국계 캐나다인 재닛 흥의 번역본이었다. 흥미롭게도, 데보라 스미스의 영역과 재닛 흥의 번역간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스미스는 의역을 하는 경향이 있고, 흥은 원문에 충실한 직역으로 흐른다는 것이었다. '채식주의자'의 첫 서너 문단을 비교한 옆 페이지의 도표에서 독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맨 첫 문장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의 번역을 보자. 재닛 흥은 "Until the day my wife turned vegetarian, I didn't think there was anything special about her", 데보라 스미스는 "Before my wife turned vegetarian, I'd always thought of her as completely unremarkable in every way"로 옮겼는데 이 문장의 앞부분은 스미스의 번역이 흥의 번역보다 더 직역이다. 그런데, 같은 문장의 뒷부분에서는 이 두 번역자의 스타일 차이가 훨씬 확연히 드러난다. 흥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반면 스미스는 내용을 아예 재구성하였다. 또 다른 특기할 점은 이 문장 앞부분에서 두 여자 모두 한강의 원문에 온전히 충실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원문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끝이곧대로의 직역은 "Until my wife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과 그의 소설 '채식주의자' 표지.

started a vegetarian diet" 이니까. 사실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과 채식을 시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다르지 않은가? 이보다 더 두드러진 번역 스타일 차이가 곧 이어진다. 역시 첫 문단에 나와 있는 다음 문장(세 번째)을 보자.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흥은 한글로는 비록 길지만 하나인 이 문장을 영어로는 넷으로 쪼개었다.

"She wasn't short, but neither was she tall. Her bob cut wasn't short, but neither was it long. She had chapped sallow skin, Asian eyes with no double eyelids, and protruding cheekbones. She wore neutral colors, as if she were afraid of standing out."

스미스는 반대로 원문의 문장 구조를 고수했다.

"Middling height, bobbed hair neither long nor short, jaundiced, sickly-looking skin, somewhat prominent cheekbones, her timid, sallow aspect told me all I needed to know."

언뜻 보면, 스미스의 번역이 훨씬 충실한 듯하지만 큰 차이가 두 군데에서 발견된다.

먼저, "외꺼풀 눈에"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않았다. (반면에 흥은 "Asian eyes with no double eyelids"로 번역했다.)

다음으로, 원문의 마지막 부분인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을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듯이 완전히 바꿔버렸다. (한편, 흥은 "She wore neutral colors, as if she were afraid of standing out"으로 번역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작가 한강에게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의 맨부커

상을 안겨주며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소설이다. 현재 번역 및 통역 전문가로 활동하는 장윤정(법대 84) 동문이 번역 전문가 입장에서 수

작의 번역을 분석했다.

있겠다. 사실 그런 예를 여럿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문단에 쓰인 "college"를 살펴보자.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학원"을 흥은 "institute"로, 스미스는 "college"로 각각 번역했다. 영국식 영어에서 "college"는 "16세 이후에 학업 또는 기술 훈련이 가능한 모든 특화교육기관"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한다. 또 다른 예는 다섯 번째 문단의 '부부싸움'을 스미스는 "rows", 흥은 "fights"로 번역한 것이다. 세 번째 예는 여섯 번째 문단 중간에 나오는 "~나는 조금 흥분했었다"와 관련해서이다. "Quite"는 일반적으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상당하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은'인 반면에 영국식 영어에서는 '약간'의 뜻이기도 하다". 이런 차이점들은 전부 대단히 흥미롭다. 다만 개인적인 의문은 이 책의 미국출판사가 왜 미국식 영어로, 미국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게끔 '현지화' 하지 않았을까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오역은 다음 원문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앞서 언급한 "rows"대 "fights"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주기적으로 바가지질 끊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흥의 번역:

"But I was just glad she wasn't like my colleagues' wives who called their husbands all day long or those wives who nagged and set off earsplitting fights."

스미스의 번역:

"On the other hand, if I'd had one of those wives whose phones ring on and off all day long with calls from friends or co-workers, or whose nagging periodically leads to screaming rows with their husbands,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의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아내들'이다. 하지만 원문에서 보다시피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질을 해대며 이런 남편들이 바로 화자의 직장 동료 또는 친구들이었다. 그러니까, 스미스의 번역은 명백히 오역이다.

한강과 데보라 스미스의 어느 합동인터뷰에서 스미스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의 독특한 난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영어와 한국어가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 내지는 영어와 다른 로망스 언어 간 번역에서 가능하듯이 구분

스미스의 영문은 "그녀의 겹꺼풀은 두터우며 누르스름한 외모가 내가 알 필요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정도로 재번역할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 이는 역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이다. 또한 'sallow(누르스름한)'란 단어를 비슷한 'jaundiced(황달기 있어 보이는)'가 이미 쓰인 같은 문장에서 사용한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스미스의 모국어인 영국식 영어에서는 미국식 영어와 달리 두 단어가 확실히 다른 뉘앙스를 풍겨서 중복되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일까?

이번에는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을 들여다보자.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흥은 이 문장을 "I've never liked feeling inferior"로, 스미스는 "I've always inclined toward the middle course in life"로 번역했다. 내가 보기에는, 양쪽 다 정확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 우리말에서 "과분하다"는 "누군가가 받을 자격을 넘어서는" 어떤 물건이나 가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 작가 한강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남성 화자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문장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 남성이 겸손한 사람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지만 글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에 이 화자는 약삭빠른 기회주의 자임이 드러난다.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지를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흥의 번역(내지는 창조적 의역)이 이 세 번째 문단의 핵심을 잘 파악했다고 보이며 스미스의 번역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인인 스미스의 번역이 영국식 영어의 용례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권 독자에게는 낯설 수도

채식주의자: 한강 연작소설

아내가 채식주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없이 해냈다. 아침마다 여섯시에 일어나 밥과 국, 생선 한토막을 준비해 차려주었고, 처녀시절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로 적으나마 가게에 보탬도 주었다. 일년간 다닌 적이 있다는 컴퓨터그래픽 학원의 보조강사로 일했고, 출판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처넣는 하청일을 받아 집에서 작업했다.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고, 내 귀가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관여하지 않았다. 어쩌다 함께 있는 휴일에 어딘가로 외출하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내가 오후 내내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뒹구는 동안 아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도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모양으로-아내의 취미라 할 만한 것은 기껏 책 읽기 정도였는데, 그 책들이란 대부분 표지를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따분해 보이는 것들이었다-끼니때에만 문을 열고 나와 말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사실, 그런 아내와 산다는 게 그다지 재미있는 일일 리는 없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The Vegetarian translated by Janet Hong

Until the day my wife turned vegetarian, I didn't think there was anything special about her. To be honest, I wasn't even attracted to her the first time we met. She wasn't short, but neither was she tall. Her bob cut wasn't short, but neither was it long. She had chapped sallow skin, Asian eyes with no double eyelids, and protruding cheekbones. She wore neutral colors, as if she were afraid of standing out. She walked up to the table where I was waiting for her in black shoes of the plainest design. She walked in a way that was neither fast nor slow, firm nor dainty.

Just as I expected, my wife performed the duties of an ordinary wife with ease. She woke up at six every morning to prepare my breakfast of rice, soup, and a chunk of grilled fish. She even contributed a little to our finances by working part time as a teacher's assistant at a computer graphics institute, a job she'd started before we got married, and she also worked from home on contract, inserting words into speech balloons for a comic book publisher.

She was on the quiet side. She rarely demanded anything of me, and she didn't care how late I came home. On the weekends we happened to be together, she didn't ask if we could go somewhere. She shut herself up in her room while I stayed on the couch in front of the TV all afternoon with the remote control in hand. She was probably working or reading. Reading was just about the only hobby she had, but most of the books she read looked so dull I didn't even want to crack them open. She only came out of her room when it was time to eat, and she prepared the meal without a word. To be honest, there was nothing exciting about living with a wife like her. But I was just glad she wasn't like my colleagues' wives who called their husbands all day long or those wives who nagged constantly and set off earsplitting fights.

The Vegetarian translated by Deborah Smith

Before my wife turned vegetarian, I'd always thought of her as completely unremarkable in every way. To be frank, the first time I met her I wasn't even attracted to her. Middling height, bobbed hair neither long nor short, jaundiced, sickly-looking skin, somewhat prominent cheekbones, her timid, sallow aspect told me all I needed to know. As she came up to the table where I was waiting, I couldn't help but notice her shoes—the plainest black shoes imaginable. And that walk of hers—neither fast nor slow, striding nor mincing.

In keeping with my expectations, she made for a completely ordinary wife who went about things without any distasteful frivolousness. Every morning she got up at six a.m. to prepare rice and soup, and usually a bit of fish. From adolescence she'd contributed to her family's income through the odd bit of part-time work. She ended up with a job as an assistant instructor at the computer graphics college she attended for a year, and was subcontracted by a comics publisher to work out on the words for their speech bubbles, which she could do from home.

She was a woman of few words. It was rare for her to demand anything of me, and however late I was in getting home she never took it upon herself to kick up a fuss. Even when our days off happened to coincide, it wouldn't occur to her to suggest we go out somewhere together. While I idled the afternoon away, TV remote in hand, she would shut herself up in her room. More than likely she would spend the time reading, which was practically her only hobby. For some unfathomable reason, reading was something she was able to really immerse herself in—reading books that looked so dull I couldn't even bring myself to so much as take a look inside the covers. Only at meal-times would she open the door and silently emerge to prepare the food. To be sure, that kind of wife, and that kind of lifestyle, did mean that I was unlikely to find my days particularly stimulating. On the other hand, if I'd had one of those wives whose phones ring on and off all day long with calls from friends or co-workers, or whose nagging periodically leads to screaming rows with their husbands,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

론과 문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려 번역자로서 원문에서 더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점들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을 번역할 때 저는 작가의 어조, 무드, 분위기, 특유의 시적이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에게 익숙한 특정 리듬과는 다른 방식 등을 충실하게 영어로 옮기려 노력합니다. 한강의 언어는 [비슷한 스타일의 영어보다] 훨씬 더 분열적이고, 완곡하며, 절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문화적 맥락입니다. 한국 문화가 아직도 영국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한국 문학작품에 영국인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의 내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설

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 실제 번역가가 아닌 번역 이론가들이나 번역 선생 같은 사람들이 소소한 문제에, 예를 들어 정확한 생선의 종류나 특정 김치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등에 엄청나게 집착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어권 독자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이지 요리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인류학이 아니라 문학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우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거나 주석을 다는 데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2010년 영역본의 번역가인 재닛 홍이 ‘예술로서의 번역’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 궁금하다. 아직까지 그녀의 의견이 발표된 글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아젤리아’ 저널의 편집자인 서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영진

교수가 최근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홍 번역자의 의견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재닛 홍의 번역을 출판한 Azalea는 미국 대학 내 한국문학 수업에서 일종의 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번역이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간의 직접적 연관성에 충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스미스 씨의 번역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영국의 상업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스미스의 번역은 훨씬 더 자유로우며 심지어 여기저기 번역이 아예 생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겨우 첫 서너 문단만을 비교했지만 이렇게 두드러지고, 때로 심오하기까지 한 스타일의 차이는 이미 분명히 드러난다. 결론적으로는 선호도의 문제라고 하겠다. 한 가지 방법은 솔직하게,

영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안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파악한 다음 번역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는 번역하는 동안 한강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현지화’에 대해 작가가 흔쾌히 허락했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언어로만 소통하는 독자에게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독자가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같은 책을 원작과 번역으로 모두 읽고자 한다면, 이런 차이점들이 거북하고 방해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어쩌면, 최상의 해법은 번역을 번역이 아닌 별도의 창작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즐기는 것이 아닐런지...

수퍼볼 첫 3연승 도전 Chiefs '다윗의 기적'을 기대하며



호민선
(상대 59)

10여년 전 미국 중부 중소 도시 Kansas City, Missouri(현재 인구 511,532로 미국내 38위)로 이사한 후에 미식 축구를 가끔 보다가 2020년 2월 KC Chiefs 대 SF 49ers의 Super Bowl을 보면서 열렬한 Chiefs fan이 되었다.

15분씩하는 3 Quarter가 지나고 4th Quarter도 7분이 지났는데 Score는 20:10으로 우리팀이 지고 있었다. Bob 장로 댁에 모여 20여명이 대형 Screen을 보며 Chiefs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며 응원하던 분들이 점점 조용해지며 패색이 짙어 질 때에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이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왜

응원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 모두 묵묵부답. 이 목사님이 옛날식 3,3,7박수의 응원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떠들석하게 박수를 치며 응원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남은 8분동안 Chiefs의 젊은 Quarterback Patrick Mohammed이 Touch Down을 연거퍼 세번하면서 31:20의 기적적인 역전승을 하였다. 어느 운동 경기에서든지 이 정도의 Upset은 흔한 일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하였다고 믿고있다.

1967년 Super Bowl I에서 Greenbay Packers에게 31:10으로 패배했으나 4년 후 Super Bowl IV에서 Minnesota Viking에게 23:7로 첫 승리를 거둔 후 50년만에 얻은 두번째 승리였으니 50만의 중부 중소도시에서의 환영 Parade는 아마도 2백만명 가까운 인파가 모였던 것 같다.엄청난 Parade였다.

2021년에도 Super Bowl에 올라갔으나 은퇴 전 Tom Brady가 Tampa Bay

Buccaneers로 옮겨서 선전하는 바람에 31:9로 대패했고, 2022년에는 아예 올라가지 못했다. 2023년에는 최고팀인 Philadelphia Eagles와 대전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들이 Eagles의 승리를 예상했다. 체격도 우람한 Eagles에 비해 Chiefs는 골리앗을 만난 다윗과 같이 체격도 왜소했다. 그런데 접전에 접전을 하여 막판에 38:35로 승리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2024년에는 5년 전의 숙적인 SF 49ers와의 재대결이 되었는데 불꽃튀기는 경기로 19:19 동점으로 10분 동안 Overtime에 들어갔다. 먼저 49ers가 3점 득점을 했다. 옛날 Rule에 의하면 거기서 경기가 끝나고 22:19로 49ers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년전 바뀐 새 Overtime Rule에 의하면 첫팀이 Touchdown을 하지 못하면 다른팀에게 공격이 넘어가는 것이다. Chiefs가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하여 Touchdown을 해 22:25로 역전승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Chiefs편

을 들어주셨나? 여기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5년동안에 4번을 Super Bowl까지 올라가고 그중 세번 승리를 했으니 정말로 대단한 팀이다. 금년(2024-2025)에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경기만해도 그렇다. 14:13으로 Denver Broncos에게 한점 뒤져가다가 14:16으로 두점 앞섰으나 Ball은 Broncos가 가진채 시간이 흘러서 몇초를 남기고서 Kick을 해서 3점을 득점하면 Broncos가 승리하는 Game이었다. 그런데, 30여 Yard에서 한 Kick을 Chiefs 선수가 손끝으로 Block하여 공이 땅에 떨어졌고 Chief의 승리가 되었다. 흔하지 않은 승리로 9-0의 무패 행진을 하면서 이 기적같은 팀은 더 야무진 계획을 하고있다. Super Bowl 사상 유례가 없는 3연승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 32 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두 Team이 남아서 Super Bowl로 마감하는 2024-2025 Season 후반부에 우리는 큰 기대를, 또한번의 '다윗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많은 일본인은 우리보다 우수한 민족인가



이회백
(의대 61 · 시애틀)

일본은 29명의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우리나라는 단 둘뿐이다. 이것을 두고 일본인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우수한 민족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일본인과 우리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수가 그렇게 많고 우리는 적은가.

동독은 과거 올림픽에서 금 메달 192, 은메달 165, 동메달 162를 획득해 그들이 스포츠에 우수함을 과시했다. 그런데 동독이 서독과 합친 후에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동독은 자기들의 공산주의가 서독의 민주주의 보다 우수함을 선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가 올림픽 메달 선수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즉 동독인이 특별히 스포츠에 자질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독이 스포츠인을 양성하듯 일본은 자기가 우수한 민족임을 선전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를 국가가 "양성" 했다. 일본인이 남보다, 특히 우리보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때문이 아니다.

일본은 특히 과학분야에 국가가 많은 지원을 퍼부었다. 물리학12명, 화학분야에서 8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그랬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국력이 약해져 앞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면 전과 같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일본인들이 있다.

반면 우리는 최근에 눈꼽만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이를 복구시켜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하는 젊은 과학도들은 입이 틀어막히고 졸업식장에서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탄압을 받았고 심지어 보수단체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 는 데모까지 벌였다. 영화 '기생충' 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재주있고 양심적인 인사는 전부 정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19대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임기 2027. 7.1 ~ 2029.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제 19대 미주 동창회를 이끌 차차기 회장(임기 2027.7.1 ~ 2029.6.30)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제 19대 회장 선거 일정

- 2024년 12월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동창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 발표
- 2025년 6월 제 34차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근거규정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인선위원

위원장 노명호
(626) 991-4457 steve.ro@lee-ro.com
이상강 17대 회장
(918) 616-3386 mpcsglee@gmail.com
황호숙 18대 회장
(651) 308-0976 sook@nano-dyne.com

인선위원

조규승(시카고)
김정필(뉴욕)
최진민(뉴잉글랜드)
정세근(워싱턴DC)

부가 박해를 가하고 창작활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나라가 이러한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한 우리

는 노벨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일본인들의 그릇된 자부심은 고쳐질 수 없을 것이다.



김학천
(치대 70)

‘얼씨구 절씨구’ 판소리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洞口)’라는 이 시(詩)에서 처럼 판소리는 거칠고 쉼 소리로 부른다. 성대를 누르고 목을 파열시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창극조라고도 불리는 판소리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음악양식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판’ 과 노래를 말하는 ‘소리’ 가 합쳐진 말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서나 가능한 일장 판극이란 말이다. 서민들의 일상 언어와 걸쭉한 육설도 들어있는 사설을 통해 당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

다. 이 때문에 판소리는 그들로부터 외면당했으나 심중을 파고드는 해학과 풍자의 매력으로 후에는 양반들의 잔치에까지 초청되면서 모든 계층이 좋아하는 장르가 된 것이다.

판소리는 각 판마다 고수의 북 장단에 따라 소리꾼 한 사람의 ‘창’ 과 사설을 늘어놓는 말인 ‘아니리’ 그리고 몸짓인 ‘너름새’ 로 길고 긴 이야기를 엮어간다. 이때 북치는 고수(鼓手)는 장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의 추임새를 중간 중간에 끼어넣어 소리를 한껏 살려낸다.

이를테면 소리꾼과 고수가 대화하는 셈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경꾼들과도 때때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순발력도 발휘한다.

해서 역시 음악을 중심으로한 무대 종합예술인 서양의 오페라가 무대에서만 정해진 인물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과 달리 판소리는 마당이건 시장이건 어느 곳에서건 구경꾼들과 호흡을 맞추고 대화하면서 인생을 논하는 삶의 현장이었던 거다.

헌데 소리꾼은 혼자서 극 중 모든 캐릭터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의 음역대 변화가 뛰어나야하고 다양해야 하는 어려움과 목을 파열시켜 나오는

거친소리를 내기 위해 피눈물나는 연습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명창(名唱)은 그리 쉽게 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1인 오페라인 판소리는 본래 열두마당이었지만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다섯마당만 전해지고 있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 특수성과 독창성,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 유네스코(UNESCO)로 부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으로서 선정되었다.

서양에서 오페라의 영향으로 생겨난 뮤지컬이 있다면 판소리의 가지에는 창극(唱劇)이 있다. 창극은 여러 사람이 배역으로 나누어 소리와 극으로 연출한다.

‘창극 심청’ 이 이미 세계화에 나섰고 그리스의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현대적 장르로 진화중이다. 한국의 소리를 프랑스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한국소리 페스티벌(K-Vox Festival)’ 은 벌써 12년이나 됐다.

이 외에도 빅뱅의 지드래곤은 ‘얼씨구 절씨구 잘도 놀아난다’ 는 가사의 ‘널리리아’ 로 해외에서도 최고의 호응을 받았으며 전통 군례악을 힙합과 결합시킨 BTS의 ‘대취타(大吹打)’ 가 빌보드에 오르는 등 국악과 K팝의 콜라보레이

션은 때론 신명나게 때론 애잔하게 대중에 스며들고 있다. 더우기 최근 인기 상승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판소리, 국극 소재 드라마 ‘정년이’ 의 첫 OST는 ‘밴드 이남치’ 의 ‘새타령’ 이다.

그러니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문화를 향한 찬사에 국악이 예외일 리 없는 것은 K팝이 우리만의 색깔로 흥할 수 있게 된 오랜 뿌리가 바로 국악이기 때문이며 세계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국악인들의 자존심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런 판극에 한국의 모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 공연을 두고 ‘기생인가, 기생집인가!’ 라고 한 폄하 발언에 명창 등 국악인 20여명이 분노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그 파장이 일었다.

자기 문화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도 문제지만 자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는 비굴하고 비루한 것이다.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퓨전 판소리에 이런 게 있다.

‘난감허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MSG보다 더 감칠 맛 나는 조미료

원래 사람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은 네가지다. 단맛과 쓴맛, 짠맛과 신맛 뿐이었는데 몇해 전 맛 하나가 추가됐다. ‘제 5의 맛’ 으로 학계에선 ‘우마미(Umami)’ 라 부른다. 마이애미 의과대학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맛이다.

‘우마미’ 는 일본인들이 지어냈다. 번역하면 ‘감칠 맛’ 쯤이 될까. 우마미는 특정한 맛세포를 자극하는 기능을 하는데 뇌는 이 맛이 들어있는 음식을 더 먹도록 인체에 명령을 내린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화학조미료 곧 MSG의 맛이 바로 감칠 맛이다.

이 맛을 만들어 낸 과학자는 100년 전 일본 도쿄대학의 이케다 기쿠나 교수로 알려졌다. 아내가 끓여준 다시마 우동 국물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어느 날 우동 국물이 흘러 마르자 하얀 분말이 되는 걸 본 것. 손에 짚어 맛을 보니 그야말로 감칠 맛이였다.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MSG란 걸 알게 됐다. 다시마에 다량 함유된 성분이

다. 이케다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맛이 앞서 4가지 맛과 다르지만 분명히 맛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맛이라서 ‘우마미’ 라고 명명했다.

MSG를 대량생산해 큰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아지노모토’ 다. 우리 말로 옮기면 ‘맛의 으뜸’ 곧 ‘미원’ 이 된다. 뿌려만 주면 맛있는 음식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아지노모토는 ‘마법의 가루’ 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MSG가 세계인의 입맛을 바꾸게 된 건 전쟁 덕분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일본의 전투식량에서 색다른 맛을 발견해 냈다. 화학조미료란 걸 알아내자 이를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게 된 것.

미국서도 감칠 맛이 난다며 식품마다 MSG를 듬뿍 넣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가 하면 두통이 나고 심지어는 골다공증 환자도 나왔다.

지금은 중국음식을 먹고 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중국식당 증후군’ 이라 부르지만 처음엔 ‘핫도그 증후군’ 으로 명명됐다. 아마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이어서 핫도그에 MSG를 정량 이상으로 넣었던 모양이다.

하기야 미국인들은 화학조미료에 면역이 안 됐으니 호들갑을 떨만도 했겠다.

요즘은 한인 식당들도 ‘MSG와의 전쟁’ 이 한창이다. 대부분 ‘우리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붙여놓고 영업을 한다. 음식에도 웰빙 바람이 불어 손님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진 까닭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MSG의 강렬한 맛에 길들여져 있어 이를 떨쳐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부작용도 없고 MSG 보다 더 감칠 맛이 나는 조미료는 없을까. 한국의 어머니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어떨지 싶다.

음식을 만들 때면 사기 그릇 안에서 뭔가를 꺼내 뿌리는 아내를 보고는 호기심이 당긴 남편. 아내는 “그릇 안을

들여다보면 음식 맛이 변한다” 며 남편을 부엌 근방에도 열썬 못하게 했다.

어느날 아내가 외출하자 궁금증을 못이겨 뚜껑을 열었다. 그릇 속에는 비장의 조미료가 아니라 종이 한장이 가리런하게 접혀져 있는 게 아닌가. 장모가 아내에게 주는 편지였다.

“무슨 요리를 하든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마라. 특히 힘들 때면 이 사랑의 조미료로 음식을 만들어라.”

아내는 어머니가 써 준 편지를 꺼내 읽어 보며 늘 이 ‘사랑의 조미료’ 로 간을 맞췄던 것이다.

‘사랑의 조미료’ - 이를 ‘제 6의 맛’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혀끝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조미료. 식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정성과 사랑을 넣으면 MSG 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 것이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음식에 ‘사랑의 조미료’ 를 듬뿍 뿌려보자. 행복이 넘쳐나 복이 넘칠까 들어올지 누가 알겠는가. (문리대 66)

러시아를 근대화한 피터 대제, 그리고 4명의 여황제

11월 SNU 포럼 지상중계

정호(공대 62) 박사 '러시아 근세 역사'

11월 SNU 포럼 강사는 아르곤(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30여 년간 선임연구원과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초빙교수 등을 지낸 정호(공대 62) 박사다. 정 박사는 원자력 핵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전문가이면서도 문화 예술 분야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특히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 지난 1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정 박사는 '러시아 근세 역사: 서구화로 이뤄낸 세계 문화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러시아 근세역사의 주요 인물인 로마노프 왕조의 표트르 1세(1672~1725)의 서구화 정책과 영토 확장, 해군 근대화로 시작된 러시아의 근세 역사를 조명하며, 이후 러시아의 찬란한 문화예술, 특히 음악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강의가 진행된다.

Catherine II, the Great (1762-1796): 34 yrs



Howard Chung

- **Personality**
 - Born in Prussia with masculine and belligerent image
 - Studious and goal-oriented. Speaks fluent French, German, and Russian
 - Conflicting duality with
 - Enlightenment (계몽주의 사상) for freedom, equal-right, democracy
 - Russia's autocracy against liberty and democracy (female monarch)
- **Accomplishment**
 - Continued Peter I's & Elizabeth's legacy with further expansion.
 - Disposed pro-German Peter III & became Russian Empress
 - Major reforms with
 - Codification of the laws;
 - Efficient central & local administrations
 - Education, Economy, Territory expansion
 - Founding Moscow University
 - Stenka Razin 의난 (1671)진압



16



정호 박사(오른쪽 작은 얼굴)의 러시아 근세사 강연 화면, 캐더린 2세는 독일 출신으로 러시아의 여황제로 34년간 통치하며 근대화에 앞장섰다. [중화면 캡처]

러시아 근대화를 시작한 피터 대제.

러시아 민족이 하나로 포커스를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키예프 루스라는 민족연합체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몽골 같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뭉치며 버텼고 결국 15세기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형성돼 나중에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됐다. 현재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인 81%, 타타르 4%이고 러시아 정교회가 70%, 이슬람 10%로 구성돼 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보면 키예프 루스를 1240년에 몽골이 쳐들어온 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몽골이 처음 도착한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고 말을 잘 들어서 식민지로 잘 대해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반항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오히려 힘들었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농민의 난이 일어나고 이후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시작되고 피터 1세 즉, 표트르 황제가 1682년에 즉위하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수백 년 동안에 러시아 제국이 생긴 후 공산 혁명에서 망해가기 전까지 서구화의 길을 잘 걸어서 러시아도 유럽에 상응하는 그런 일류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로마노프 왕조의 피터 대제는 굉장히 프로그래시브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었다.

손재주가 있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고 모스크바가 내륙이니까 상테페테르부르크의 바닷가에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삼고 해군도 만들고 육군도 강화시키기도 했다.

수학, 기하학, 전문 모든 이과 분야, 테크놀로지와 메디컬 테크놀로지까지 공부하고 화폐 개혁, 우편 제도도 개선했다. 옛날 관습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다. 달력도 서구형으로 바꾸고 복장이나 모든 문화 면에서도 서구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의 성격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사교적이지만 반면 반대파를 완전히 무자비하게 척결했다. 파티도 좋아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리더로서 보트 모델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외과나 치과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다. 패션 감각도 굉장히 우수해서 유럽 스타일로 덩치도 크고 굉장히 멋진 그런 남자였다.

여행도 많이 해서 공학 지식과 기술을 많이 습득을 했다. 그가 이룬 것을 보면 희한하게도 정책이 중앙 집권주의적이고 정치 경찰도 만들고 교회를 통제해서 왕정이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 능

력 위주로 제국 관료층을 구성했고 세금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엘리트 양성하는 사회 분위기로 바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터 대제가 죽고 여자 황제의 시대가 무려 75년이나 바로 이어진다.

피터 대제가 죽고 세컨 와이프가 뒤를 이어 2년 동안(캐서린 1세)을 재임했다. 이어서 12세의 손자(피터2세)가 재임했고 이복 형제의 딸 안나(여황제 안나)가 10년을 통치했고 안나의 손자인 3세로 이어졌다. 이어서 대를 이은 것은 피터대제의 딸, 엘리자베타가 20년을 통치하며 아버지의 개혁을 계속했다. 이어서 조카가 피터 3세가 됐지만 6개월만에 퇴위당하고 부인인 캐서린 2세(캐서린 대제)가 34년간 재위했다. 이렇게 75년 동안에 러시아를 탈바꿈 시킨 것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특이한 것은 피터 대제가 남녀 상관없이 귀족이나 평민이나 무관하게 혈통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능력 본위로 후계자를 정했다. 저변에는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해안이 있는 남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황제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피터 대제의 딸, 엘리자베타 황제가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굉장히 아름다

운 여인이었다. 교육받은 러시아 지식인을 중용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회가 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는 문화 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모스크바 대학을 설립했고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업을 키워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다. 외교도 서유럽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외교 정책을 가졌으며 프로시아와의 7년 전쟁도 이겼다.

1801년부터 통치한 알렉산드르 1세는 캐더린의 손자로 24년 동안 나폴레옹을 이기고 파리에 입성하기도 했으며 핀란드와 폴란드를 합병한다. 하지만 농노해방에 실패하고 비밀 정치위원회를 만들지만 기존 방향과 마찰을 하는 바람에 서구의 산업혁명에 상응하는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서 뒤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왕조시스템이 강해서 니콜라스1세가 즉위하지만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알렉산드르 2세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농노해방을 시켰고 연해주도 얻었지만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됐다. 결국 노동자의 해방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산주의로 가는 전초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강재호 (상대 57)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호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웅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용오 (의대 66)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재진 (문리대 55)
- 이창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근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환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호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중화 (약대 74)

-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종률 (사대 51)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흥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시카고
- 故이윤모 (농대 57)
- 강영국 (수의대 67)
- 소진문 (치대 58)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 한재은 (의대 59)
-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 65)
- 진성호 (공대 64)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중석 (의대 54)

-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 하틀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상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성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경자 (미 60)
- 김건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경욱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기형 (상 75)
- 김남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자 (간 60)
- 김명희 (간)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만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칼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옥경 (생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택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택수 (의 57)
- 김학철 (의 55)
- 김혜수 (미 68)
- 김홍숙 (문 60)
- 김희창 (공 64)
- 니두섭 (의 66)
- 니승욱 (문 59)
- 니용화 (생 79)
- 노명호 (공 61)
- 노진걸 (사 70)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일기 (약 69)
- 박명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우석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임하 (치 56)
- 박지경 (생 60)
- 박중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란 (미 70)
- 박혜록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완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흥 (문 53)
- 서동영 (공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선우원근 (공 66)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58)
- 손갑수 (약 59)
- 손기용 (의 55)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선웅 (의 63)
- 오찬수 (약 57)
- 故 오형원 (의 53)
- 유준식 (상 61)
- 원종민 (약 57)
- 위종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영자 (음 63)
- 유이중 (농 74)
- 유석환 (치 55)
- 유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석철 (상 60)
- 윤희성 (치 65)
- 이강훈 (치 65)
- 이건일 (의 8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명숙 (농 58)
- 이방기 (농 59)
- 이범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성숙 (공 56)
- 이성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희 (간 70)
- 이용한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고)이중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창무 (공 54)
- 이광선 (법 57)
- 이형광 (상 61)
- 이채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의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병희 (인 86)
- 장소현 (미 65)
- 장용오 (약 57)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용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균희 (의 64)
- 정동주 (생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웅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황 (공 64)
- 제영해 (생 71)
- 조경애 (음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주충자 (간 61)
- 조태욱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음 69)
- 차중환 (사 54)


- 천원희 (가 71)
- 최규환 (법 59)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순 (간 69)
- 최영지 (미 62)
- 임동규 (미 57)
- 한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성구 (상 53)
- 한원민 (의 59)
- 이춘우 (의 63)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홍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희민 (법 55)
- 정화웅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공 56)
- 차영태 (문 67)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재자 (음 57)
- 권문웅 (미 61)
- 권영국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덕 (의 58)
- 금영천 (약 72)
- 합중희 (치 61)
- 김광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복영 (간 69)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우현 (의 59)
- 김영무 (공 75)
- 김영용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희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정희 (약 56)
- 김정희 (간 69)
- 김중원 (가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약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해일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연 (의 52)
- 민인기 (의 67)
- 리준무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원 (미 66)
- 박경희 (음 57)
- 박상수 (공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련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병선 (음 65)
- 서충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선종철 (의 59)
- 성기호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손진태 (약 67)
- 송기인 (의 60)
- 송웅길 (대학원 69)
- 송은숙 (간 66)
- 신두식 (의 58)
- 신용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명자 (사 63)
- 양성택 (상 66)
- 오용환 (의 66)
- 오용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우상영 (상 55)
- 유인숙 (간 63)
- 유재섭 (공 65)
- 유호근 (문 73)
- 육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석 (의 57)
- 윤중수 (약 66)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공 70)
- 이대영 (문 64)

- 이명준 (공 72)
- 이문봉 (미 76)
- 이상근 (상 84)
- 이상무 (의 56)
- 이영숙 (간 60)
- 이영일 (의 60)
- 이우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우 (음 65)
- 이준행 (공 48)
- 이종욱 (농 69)
- 이춘희 (의 63)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홍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희민 (법 55)
- 정화웅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공 56)
- 차영태 (문 67)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재자 (음 57)
- 권문웅 (미 61)
- 권영국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덕 (의 58)
- 금영천 (약 72)
- 합중희 (치 61)
- 김광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복영 (간 69)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우현 (의 59)
- 김영무 (공 75)
- 김영용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희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정희 (약 56)
- 김정희 (간 69)
- 김중원 (가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약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해일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연 (의 52)
- 민인기 (의 67)
- 리준무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원 (미 66)
- 박경희 (음 57)
- 박상수 (공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련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병선 (음 65)
- 서충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선종철 (의 59)
- 성기호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손진태 (약 67)
- 송기인 (의 60)
- 송웅길 (대학원 69)
- 송은숙 (간 66)
- 신두식 (의 58)
- 신용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명자 (사 63)
- 양성택 (상 66)
- 오용환 (의 66)
- 오용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우상영 (상 55)
- 유인숙 (간 63)
- 유재섭 (공 65)
- 유호근 (문 73)
- 육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석 (의 57)
- 윤중수 (약 66)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공 70)
- 이대영 (문 64)

- 민영기 (공 65)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명순 (간 64)
- 최병두 (의 53)
- 하계현 (공 64)
- 안신훈 (농 61)
- 연경자 (약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윤봉수 (간 69)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덕수 (문 58)
- 이동규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용락 (공 48)
- 이우성 (약 51)
- (고)이윤모 (농 57)
- 이준수 (공 76)
- 이종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현학 (공 69)
- 전현일 (농 62)
- 조대현 (공 67)
- 조중행 (의 63)
- 최대현 (의 59)
- 최혜수 (의 53)
- 최희수 (문 67)
- 최의일 (공 62)
- 한재은 (의 59)
- 홍건 (의 64)
- 홍성일 (약 57)
- 황소나 (문 65)
- 황치룡 (문 65)
-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 오레곤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농 78)
- 최용성 (의 55)
- 한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 오하이오
명인재 (치 75)
- 박훈 (공 74)
- (고)이영웅 (의 57)
- 워싱턴 DC
강길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철수 (의 68)
- 권오근 (상 58)
- 권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용현 (치 88)
- 김희주 (의 62)
- 나윤수 (사 57)
- 남춘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홍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균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양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준희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우성 (상 63)
- 이재준 (의 55)
- 이중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의생 (수 60)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 워싱턴주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박진수 (의 57)
- 변동해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석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술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 유타
김인기 (문 57)
- 조지아
김기준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중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남세현 (공 67)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성상모 (사 67)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이종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희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중진 (의 63)
- 한성수 (의 54)
-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 정신호 (자 78)
-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 최창송 (의 58)
- 테네시
권준희 (가 7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텍사스
김장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종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최취기 (공 61)
- 황명규 (공 61)
-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 김중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염태근 (의 56)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 강준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화 (상 63)
- 김정현 (공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규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종민 (공 64)
- 성기호 (상 59)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종렬 (미 61)
- 오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경숙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성숙 (생 74)
- 이수경 (자 81)
- 이지춘 (미 57)
- 이희일 (상 70)
- 장학량 (약 56)
- 조화연 (음 64)
- 전무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정덕준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홍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흥민 (수 61)
- 최중우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희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용오 (보 70)
- 하와이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용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문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생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 휴스턴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길영 (문 59)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룩키마운틴스
송유준 (의 64)
-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채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사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복영 (간 69)	5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철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200
박중승 (의 56)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승 (의 52)	500
서종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묘 (간 69)	240
이태영 (법 60)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시카고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3,000
박수경 (생 84)	4,2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Charity Fund)	
남가주	
주선휘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니아	
신의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제 33차 평의원 회비	
남가주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목 (문 60)	
이종묘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춘택 (상 68)
뉴욕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록키마운틴스
권순영 (간 69)
커네티컷
김창수 (의 54)
조지아
김명숙 (약 69)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워싱턴 DC
박평일 (농 7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필라델피아
김현영 (수 58)
윤정나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나눔)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TEAM SPIRIT®
INVESTMENT & DEVELOPMENT

Jennie Lee 이종묘 (간호 69)

Cell. **714.396.0624**

Tel. **714.562.0404**

Fax. **714.736.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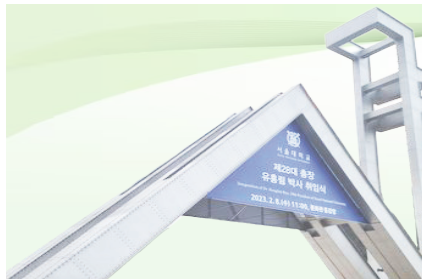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REALTOR **BRE#00975064**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나용화(생)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공동위원장
박평일(농), 공동위원장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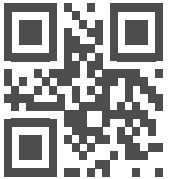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성(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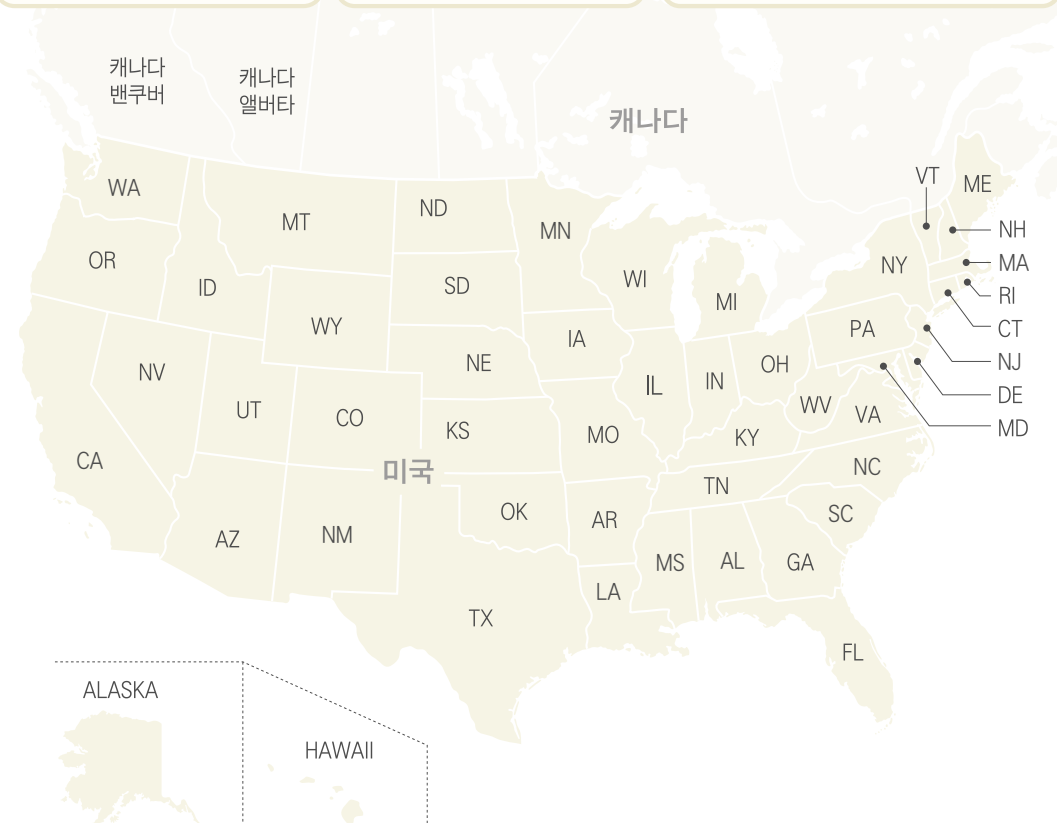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c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신응남 변호사

- ✓ 파산전문
- ✓ 모기지 부채조정
- ✓ 각종 민사소송
- ✓ 사업체및부동산매매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 2FI UL-2, Flushing, NY 11358

신응남 변호사 (농대 70)



Durable, Efficient, Beautiful

- Digital Technologies & High-tech Monitor System
-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Saving Design
- Nationwide 18 Branches & Warehouses
- Company Operated Service Network
- 3 Year Labor & Parts Warranty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터보에어 그룹은 세계적인 상업용 냉장고 생산업체로서

미 전역 18개 지사 및 물류창고, 7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 한국, 중국에 위치한 5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5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Dallas, TX 에 26 Acre 부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던 터보에어는

지난해 Long Beach, CA 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6만 Sq.Ft. 규모의 초현대식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한 위치와 최신식 건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New Headquarters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oll Free : 800-627-0032
www.turboairinc.com

서치원 (공대 69)